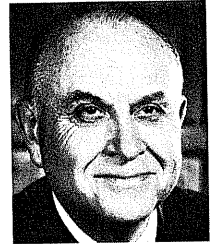


성도의 벗 6
1972

순서

데이비드 비이 헤이트	영감의 메시지
조셉 필딩 스미스	1 권두언 : 엘리야의 오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4 예언자 엘리야
로렌 시이 던	8 이는 내사랑하는 아들이니
앨레이 엘 크리스찬슨	11 면밀히 걸름
하트만 렉토 이세	14 희생은 축복을 안겨준다
웬델 제이 애쉬튼	17 노동의 참된 가치
에스 딜워스 영	18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레온 캐스텔 앤더슨	21 돌로 끊인국
마벨 존스 개봇	24 아빈아다이
매리 프랫 패리쉬	26 책찌 소리
도일 엘 그린	29 맬빈 제이 애쉬튼
에즈라 태프트 벤슨	38 사탄의 공격대상 : 젊은이
리차드 엘 이반스	43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아이리스 신더가드	44 뜻다한 말
이 호남	46 선교부장단 메시지
	47 내외소식

영감의 메시지



데이비드 비이 헤이트장로
십이사도 보조

● 나는 니파이가 훌륭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다고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일찌기 혼자 되셨지만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을 게을리하신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병환 중에도 나를 가까이 불러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간증은 결코 시들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이해하였고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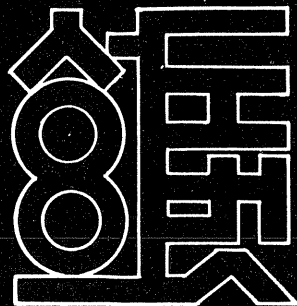
나의 아버지는 언제나 내자신의 이상이었습니다. 나는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항상 남을 돕고 교회나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아버지를 닮고 싶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교회의 지도자로부터의 부름에 가까이 응했으며 그들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나는 그러한 정신이 나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인생과 성품을 형성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유산 중에 훌륭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가족들이 물려 받는 유산 중 귀중한 조상의 추억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표지설명 :

1971년 12월 2일 십이사도로 부름을 받은 맬빈제이 애쉬튼 장로가 이달의 표지에 소개됩니다.

그는 이 경륜의 시대에 일흔 아홉째로 사도의 직에 부름을 받은 분입니다. 뒷면에는 애쉬튼 부부가 손자인 마이클 애쉬튼과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도일 엘 그리니 쓴 십이사도 맬빈 제이 애쉬튼이라는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전면 사진 교회 공보부 제공, 연사인 사진 기자, 엘든 린쇼튼 촬영)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 1972년 6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83호
편집겸 : 엘 에드워드 부라운
발행인 : 한국 번역 출판부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 일 성 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1권 100원
국내 800원
국의 선박 5년
항공 7년
(송료포함)
1년분

제 8 권 제 6 호
1972년 6 월호

대관장단
조셉 필딩 스미스
해럴드 비이 리
엔 엘덴 태너

십이사도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타플리
매리온 지 홀니
리그랜드 리차드
휴 비이 부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골든 비이 힐크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맬빈 제이 애쉬튼

엘리야의 오심

대관장 조셀 필딩 스미스

구약 성서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는 다음과 같은 말로서 그의 예언을 끝 맺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진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라기 4:5~6)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가 후세에 주는 약속으로 그의 말을 마쳤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것으로, 그는 그러한 약속에서 과거의 경륜과 후세의 경륜을 잇는 때가 오리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말라기의 예언의 말은 대부분의 경전 해석자들에게 풀 수 없는 신비로움만을 안겨 주었습니다. 특히 엘리야의 음에 대한 선언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경전 해석자들이 장벽에 부딪치게 되는 이유는 주로 그들이 기원전 일천년 경에 살았던 고대의 예언자가 말라기가 설명하고 엘리야가 소유했던 것과 같은 놀랄만한 권능을 가지고 보내졌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했

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¹⁾로서 칠패 요한이 음으로써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한 가지의 이유는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가 요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한말을 율게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 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누가복음 1:17)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것은 사실이나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하려 온 것은 아닌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조금 전 말일에 일어나기로 계획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예언자가 후세에 지상에 보내지리라고 하는 경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당연하다 하겠습니까. 변형의 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모세

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경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상을 떠난지 이미 오래된 모세와 엘리야가 이들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시대에 그들이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권능과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보내졌다고 믿는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구세주와 제자들이 변형의 산에서 내려 왔을 때 주님께서는 자기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설 때까지 이러한 시현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엘리야의 음에 관해 심히 알고 싶어 했으므로 그들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마태복음 17:11~12)

그 때 사도들은 주님이 요한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세주는 칠패 요한이 엘

⁽¹⁾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막 9:4) (왕부록그림)

1) 원문에는 일라이어로 되어 있음.



리아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으나 언젠가는 모든 것들을 회복할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엘리야가 오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짧은 지상에서의 기간 동안 중요한 일을 하였으나 모든 것들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한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르치게 준비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는 엘리야인 것입니다.

엘리야란 이름은 단지 고유 명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명칭입니다. 엘리야란 자신보다 위대한 사람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사람보다 먼저 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름으로 요한은 봉사하였으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자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하던 절정의 시간 동안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은 성취되어야 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은 말일에 이루어지도록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잠시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행 1:6~7) 이 대답에는 한 가지 의미가 있으니 즉 아직 회복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 진리는 이 제자들에게 매우 분명해 졌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죽으심에 도구의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을 꾸짖은 것도 이 일이 있던 직후였습니다. 그는 그

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기록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행 3:19~21)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때가 찬경륜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엡 1:10)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회복의 때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엘리야가 그의 신권을 가지고 지상에서 하늘과 땅에서 인봉될 권능을 인간에게 주고 인류가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에 악인들에게 있을 멸망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을 주게 될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일입니다. 이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상의 의로운 자 가운데서 권능으로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이 지구를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히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은 의로운 자의 마음에는 의로움을 주지 못하나 불경한 자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구세주의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823년 9월 21일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던 니파이인 예언자 모로나이가 말라기의 말씀을 분명히 해석해 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로나이 천사가 한 말입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2:1~3)

모로나이는 요셉 스미스에게 이러한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12년 후인 1836년 4월 3일에 드디어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날 엘리야는 커틀랜드 신전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서 하늘과 땅에서 묶이고 인봉될 수 있는 권능인 신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 신권의 열쇠를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충만한 구원 의식으로 모든 의로운 자를 영원토록 인봉할 수 있는 권능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엘리야가 이 신권의 열쇠를 가진 마지막 예언자라고 말하고 그는 모든 복음의 의식을 의로운 가운데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경륜시대에 이러한 권능을 회복하려 오게 될 것이며, 이러한 권능없이는 의식이 의로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능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온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것을 막아 주는 큰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마음 속깊이 확고하고 분명하게 간직한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이 혼란과 재앙이 있고 인봉의 능력이 없게 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

께서는 당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며 그의 권능을 받은 종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은 의식은 어떠한 것이던지 비록 그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성스러운 사자를 통해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충만한 복음과 충만한 신권의 열쇠를 회복하신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회복의 날에 엘리야가 모든 복음의 의식을 확실히 하는 인봉의 권능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나 또한 경륜의 열쇠를 지닌 고대의 예언자가 아담의 시대로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시대까지 나타나서 때가 찬경륜의 시대에 그들의 권능을 회복하시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베드로나 바울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가르침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봉의 권능을 갖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승인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인정받게 하는 권능을 지닌 엘리야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지닌 이러한 권능의 회복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적은 주님의 신전에서 의식이 행하여져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모든 선조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선조를 위하여 행하는 간접적인 의식을 통해 가능합니다. 엘리야는 남편과 아내가 현재는 물론 영원히 인봉될 수 있는 권능을 회복하였는데, 이는 결혼이 지상에 죽음이 있기 이전에 제일 먼저 제정된 의식으로 주님의 목적에 따라 영원하게 의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엘리아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편 / 십이사도

141차 반연차 대회에서 한한 연설

얼마전에 나는 어느 저명한 인사가 젊은이의 최근 경향에 관한 연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부모와 다른 길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연사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촉구하였는데 부모들은 현대 사회의 물질 문명이 이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고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연사는 새로운 세대와 부모의 세대와의 세대 차이에 관해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젊은이의 편을 들어 부모들은 과거의 세대에 속해 있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사고 방식과 새로운 이상과 구 세대와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로 발전을 하려면 오히려 세대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만일 자녀들이 부모와 똑같은 길을 쫓는다면 발전이란 기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존 질서에 대항하는 현 세대의 봉기에 의해 강요되더라도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것이 시험을 받기도 전에 누가 감히 낡은 것이 새 것보다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면서 부모나 젊은이 사이의 차이나 충돌은 영원한 것이어서는 안되고, 부모가 자녀들의 생각이나 노력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잘 이해하는 보다 성숙한 관계에 이를 수 있도록 새로운 생각과 발전을 줄 목적으로 일시적인 것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를 보냄에 관한 말라기서의 이 구절보다 학생들에게 해석상의 큰 문제를 준 구절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리라고 한 선지 엘리야란 과연 누구일까요? 그의 생애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록상에 나타난 엘리야에 관한 최초의 이야기는 그가 갈릴리에 있는 요단강 동쪽 길르앗의 디셋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사건은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9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위대한 예언자는 바알 신을 숭배하던 자들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인 여호와를 수호하여 싸운 지도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많은 기적과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기근이 나라를 휩쓸게 되리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언자는 요단 강 동쪽 제리드 강으로 갔습니다. 이 강은 그에게 물을 주었으며, 주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주야로 전해 주셨습니다. 심한 기근으로 강물은 다 말랐고 그는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아들과 살고 있는 어느 가난한 과부에게 그를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성문 앞에서 그녀를 만났고 물과 빵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과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열상 17:12)

엘리야는 그녀에게 한 움큼의 가루나 조금 밖에 없는 기름일지라도 없어지지 않을테니 두려워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 집에 있는 동안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고 그 소년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후에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으며 아합왕에게 가면 가뭄을 멈추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은 두로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후 바알 신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종교인 바알을 히브리인들에게 소개했으며 히브리인의 종교를 공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기근이 그치게 되리라는 소식을 전하자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재난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것을 책했

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두 세대의 관계는 이러한 조정을 통해서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그들의 차이가 지적인 타협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게 하므로 이 구세대와 젊은 세대를 굳게 결합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명제를 뒷받침해 줄 구약성서의 마지막 두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라기 4:5~6)

입니다. 그는 자기와 바알 선지들 사이에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세벨의 도움을 받는 바알의 선지들을 이끌고 갈멜 산 꼭대기에 가서 경쟁을 벌였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불러 모았고 엘리야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 선지 450명과 대항하여 시합을 벌였습니다. 경쟁은 각기 자기가 섬기는 신의 제단을 만들고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찢어서 그 위에 올려 놓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점심이 지날 때까지 바알 신을 외쳤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쌓은 제단 주위에서 날뛰며 자기 칼로 자신 몸을 찌르고 피를 흘렸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 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준비한 제물에다 물을 부으라고 명하고 다음과 같이 간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십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활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열상 18 : 36~39)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킁킁해 지더니 역수같은 비가 쏟아져 가뭄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화가 나서 엘리야를 위협하자 그는 브엘세바로 피하였고 다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주님을 만난 것을 멘델스존¹은 엘리야 오라토리오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는 바람의 큰 힘을 느꼈고, 바위가 산산 조각으로 부서졌고, 지진과 불이 있는 다음 조용해지면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열상 19 : 9~10)

군대가 그를 체포하려 파송되었으나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청하여 그들을 소멸시켰습니다.

위대한 여호와의 수호자인 엘리야와 그의 친구 엘리사는 함께 예리고에서 요단으로 갔습니다. 엘리야는 걸음을 맡아 물을 이리 저리 쳐서 이 두 사람이 육지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열왕기하 2 : 11)

엘리야의 이야기는 구약 성서에서 나오며 신약 성서에서도 그에 관해 언급된 것이 있지만 후에 주어진 계시가 없었더라면 말라기가 한 약속이나 그의 사명에 관해서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모로나이 천사가 말한 이 경륜의 시대에 기록된 계시는 말라기가 한 말을 거의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오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 후 팔년만에, 커틀랜드 신전이 헌납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놀랄만한 시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10편에 기록된 몇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걸히고 이해의 눈이 열리는 지라.”

주님께서서는 설교단 흥벽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모세가 나타났고 그 다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기록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현이 닫히고 나서 다른 위대하고도 영화로운 시현이 갑자기 우리에게 열리더라.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워간 예언자 엘리야가 우리앞에 서 계십이라. 또 이르시되

“보라, 진실로 그 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말라기의 입으로 이야기되던 때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저(엘리야)가 파송되어,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이 저주로 얻어 맞으리라고 증거한 그때니라.”(교성 110 : 1, 13~15)

과거 수 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지식이 없이 심판을 받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다음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벧전 3 : 18~19)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또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벧전 4 : 6)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이를 듣고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침례를 받지 못하고 이 지상에서 살다가 죽은 사

1. 멘델스존, 야콥 루드비히 헤릭스(1809~1847) : 독일 작곡가 겸 지휘자.

141차 반연차 대회에서 행한 연설



이 가 내 사 랑 하 는 아 들 이 니

로렌 시이 번, 회장
칠십인 제일 정원회

교리와 성약 68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시온의 주민이나 조직된 시온의 어떤 스테이크에 사는 주민에게도 하나의 율법이 되리라.

“저들의 자녀는 여덟 살이 될 때에 죄 사함을 위하여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하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 : 25~28)

우리가 이러한 성스러운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가정의 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가정의 밤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와 다른 가족간에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세상에서는 부자간의 관계보다 더 훌륭한 관계가 없다고 믿는데, 이 관계란 본능적으로 있었고 차츰 사랑과 친절과 관심을 통해 발전되고 성숙하게 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어머니의 무한한 역할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자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나는 어머니가 되어본 적이 없으므로 그러한 면에서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다고도

느낍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교회의 자매는 지상에 하나님의 소왕국을 건설하는 부모나 자식간의 유대를 굳히는데 있어서 교회의 형제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나는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명을 받았읍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 중 중요한 부분은 모로나이 천사가 그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데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어린 소년과 그의 부친과의 관계를 주의깊게 인정하셨으며 아무도 이러한 일에 해를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것이고, 특별해야 합니다.

확실히 자녀들의 장래는 언제나 예상된 대로는 되지 않으며 흔히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가족을 실망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 젊은이가 갈등과 이상과 표준 가운데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다가 겪게 되는 좌절감을 경감시켜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이 영원히 구원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평론가가 오늘날의 젊은이를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는 목표를 잃고

해매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마약, 술, 록 음악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는 불쌍한 존재이다. 또한 여성들은 자신이 일류 스타와 같이 생기지 못했다고 실망해하는 모습을 오늘날 여성에서 흔히 보게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어린이가 이상의 세계라고 생각한 세상이 너무나 자신과 거리가 멀 때 어떤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젊은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교수형을 받는 것처럼 잠시 동안 고통을 주고 만다고 말하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젊은이가 자신과 거졌된 이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자기는 다른 사람만큼 훌륭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가 교회에서 배운 것과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 사이에 있는 이상과 표준의 갈등은 놀랄만한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주게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자녀가 이해하도록 돕고, 자녀가 스스로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하며, 그들이 자립하고 표준에 항상 가깝게 생활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년이나 노년에 있는 사람은 젊은이가 얼마나 예민하게 영향을 받기 쉬운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젊음이라고 불리우는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했으며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회원되는 아버지들께서도 가끔 특별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75편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만 할 자는 누구든지 부양하게 하라. 저는 결코 자기의 면류관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자는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라"(교리와 성약 75:28)

이상의 말씀은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 안에서 일하라는 기본적인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의무와 교회에서 그가 갖는 여러 가지의 책임 간에 갈등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문이 종종 야기됩니다.

이에 관해 모임을 소집하고 계획하는 책임을 갖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는 끝날 시간과 시작 시간을 사전에 정해놓은 잘 계획되고 조직된 모임은 시간을 최대로 이용하게 할뿐만 아니라 모임에 참석하는 형제들이 아내나 자녀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계획된 모임이란 가족들이 모임에 참석한 남편이나 아버지가 언제 집에 돌아올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모임입니다. 잘 계획된 모임은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게 해 주며 필요없이 참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임을 갖지 않게 해 줍니다. 확실히 잘 계획된 모임은 모임에 참석하는 아버지는 물론 가족에게도 축복을 안겨다 줍니다.

반면에 이제 막 읽은 교리와 성약에서도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족을 돌보고 또한 교회에

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갖는 막중한 책임이 가족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겠읍니다. 나의 부친은 20년간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여섯 살 때 부름을 받아 스물 여섯 살 때 해임이 되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분이 스테이크 부장이 아니었던 적은 기억할 수 없읍니다. 그는 아주 큰 스테이크에서 일했고 스테이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바쳤읍니다.

그외에도 그는 신문 편집인이었으므로 마감 시간이라든가 그대로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일등 많은 일을 해냈읍니다. 나는 그에게 있어서 하루에 17, 18, 19시간은 보통 그러한 바쁜 일로 보였다고 기억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다소는 어려운 문제를 가져다 주었지만 별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읍니다.

사실상 그는 우리와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었으나 그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점을 회상해 볼 때 나는 그가 우리를 그의 생활 속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은 그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주히 다니시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언제나 그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또한 그와 어머니가 아무

리 고단하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는 결코 주무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가족 중에서 나 혼자만 집을 비웠을 때라도 그는 내가 돌아 올 때까지 가족 기도회를 갖지 않고 기다리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때는 언제나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그러한 것이 기도를 하면서 부모님 곁에서 하루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젊은이로서 나의 행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외에도 우리는 조용하고 늦은 밤에 의미있는 토론을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는 시간이 어떻게 되었던간에 내가 말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나 기꺼이 나의 제의를 받아들여주셨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갖지는 못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는 우리가 함께 갖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들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가끔은 바쁜 중에라도 그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시간은 많으나 이러한 관심을 가져 주지 못하는 부모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짧은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나이가 아홉살이 되면 반 이상의 시

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됩니다. 열 여덟 살이 되면 학교나 기타의 장소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열 아홉 살이 되면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시간이 더 짧아질지도 모릅니다.

나는 일전에 어느 감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의 열 여덟 살 먹은 딸이 한 밤중에 질문할 게 있다고 그를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 감독은 다음 날 아침 자기는 매우 바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제발 한 밤 중에 자기를 깨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딸은 초조한듯이 말을 듣고 있다가는 실망한듯이 “아빠 그렇지만 아빠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군요. 아빠는 감독이 아니에요. 저는 문제가 있어서 찾아 왔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와드의 머리로써 합당하게 권능을 가진 감독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감독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와드의 감독이나 가정 복음 교사는 가장이 일시적이건 영구적이건 가정을 떠나 있게 되는 가족을 훌륭히 돌보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시간을 내서 늦기 전에 자녀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해 주고 젊은이들에게 의로움, 진리, 기쁨, 화평, 행복의 원칙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이 교회의 사랑스러운 어머니들에게 보다 큰 도움과 지도력을 베풀어 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면밀히 검토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장로
(십이사도 보조)

지금 나는 마음 속에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신과 격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줄 수 있는 말씀을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과 아름다운 것과 바람직 한 것들이 수 없이 많습니다. 경상적이요 유일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받아들여지고 존중되어 오던 하나님께서 주신 표준과 참된 원칙이 많

은 사람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는 시대가 또한 오늘날인 것입니다. 참으로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눅 21:25)를 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람의 사랑은 차차 식어질 것이요, 악행이 가득 차리라”(요 45:29)고 이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날이 왔겠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를 휩쓸고 있는 타락한 모습을 보는 것은 가장 마음을 괴롭히는 일의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권을 잃는 목사나 방음을 들는 청취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범죄와 전쟁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세계를 위협하는 위기나 범법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만족할만하게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악마는 이러한 모든 것의 기초, 곧 살인과 암흑의 일의 기초라……”(니이 26 : 22)고 말해주고 있으며, 그는 “크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갖 간악함을 행하도록 선동하며, 교만으로 부풀게 하고 권세와 지위와 부와 세상의 헛된 것들을 탐하도록 저들의 마음을 유혹하였음이었요”(니삼 6 : 15) 라고 알려 줍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도

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성 1 : 16)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우리의 가르침을 들으라. 보라 오늘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나니, 이는 주이신 구속주가 이미 그의 일을 다하셨음이었요, 그의 권세를 인간들에게 주어버렸음이라.” (니이 28 : 5)고 주장합니다.

고대 예언자 니파이는 오늘날을 예견하여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임스 이 탈메지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유해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적이란 하나님의 지혜로 허용된 범죄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보다 큰 능력에 의해 제지를 받게 됩니다.”(신앙 개조, 63페이지)

어떤 사람은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가지셨는데 모든 악한 행위를 끝내지 않는가?” 라고 질문 할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즉 “범사에 서로 상대가 있어야 함이 마땅하기…”(니이 2 : 11)때문입니다.

그러한 상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주님께서도 그러한 권리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사인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자는데 있습니다. 인간의 진보란 반대나 역경에 처해서, 특히 굳건히 이에 대처해 나가고 끝까지 견디어 나가려는 마음 가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극복하고 참는 성격의 소유자 보다 더 많은 반대를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약



과 싸우며, 어떤 사람은 욕정과, 어떤 사람은 이기심이나 질투, 어떤 사람은 슬픔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듣고 싶어하는 다음에 적는 노래는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다 줍니다.

“나 너를 불러 깊은 물 건느냐 슬픔의 강물이 넘치지 못하리 나너 함께 하고 근심 덜어 주며 네 깊은 곤경을 불태워 없애리 네 깊은 곤경을 불태워 없애리 (군도다 그 기초, 말일성도 찬송가 16장 4절)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지금은 현대사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적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적임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가 예언자의 말씀에서 들었듯이 우리는 원수의 불길같은 창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우리가 모두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 악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이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고 거룩하게 지명된 그의 종의 권고를 지지하고 순종하며 물문경의 말씀처럼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헛됨을 피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정화

하고 우리의 가정을 성스럽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충실하고, 순종하고, 정직하고, 법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주님과 그의 교회에 대해 사랑을 갖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살며 행동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나 원칙을 지지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분이나 유혹이나 인간의 신조없는 철학을 따르려는 것은 가장 값비싸고 바람직한 평화, 자유, 구원 등을 잃게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 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야고보서 4:7~8)

안전한 길은 “와서 나를 좇으라”(눅81:22)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진리의 빛을 적용만 한다면 우리의 생활에 달콤한 평화와 고요함을 맛볼 수 있는 훌륭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장소로 이세상을 만드셨고, 이곳으로부터 즐거운 지상에서의 삶과 다음에 오게 될 영광스러운 삶의 축복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예레미야 17:7)

그는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알려 주셨습니다. 즉 복음을 준수하는 사람에게 주신 행복과 성공의 완전한 계획,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성령의 암시가 그

러한 요소로 우리를 인도하고 경고해 줍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상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점에서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할 데 없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훌륭한 배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란 교회이며 결코 파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 없나니,

“하나님은 굽은 길로 걸지 아니하시며, 바른쪽으로나 왼쪽으로도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고치시지도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 곧고 그 나아가시는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이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좌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인간의 일이니라.”(교리와 성약 3:1~3)

나는 오늘 베냐민 왕의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더욱더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축복을 받은 행복한 상태를 마음에 기억하라. 보라 이들은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범사에 축복을 받으며, 이들이 끝까지 충실할진대 하늘에 영접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이 그치지 아니하는 곳에 거하리로다. 오 너희는 이러한 것들이 진실함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라.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모사 이야기서 2:4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희생은 축복을 안겨준다

하트만 렉토 이세 회장
칠십인 제일 정원회

지난 가을에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매주 월요일 저녁에 가정의 밤을 가질 것을 공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매주 월요일 저녁에 프로 축구 시합이 열리게 된다는 발표가 거의 동시에 알려져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축구 시합의 중간 휴식 시간에 가정의 밤을 가지려 하는 가족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면 놀랄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에 가정의 밤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예언자께서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였다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고리와 성약 4편 5절에서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신앙, 희망, 자비, 사랑의 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자는 그 일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앙, 희망, 자비, 사랑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한다는 것”은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끊임없이 행하거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원하신 바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할 때 그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성품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일만 잘하면 그만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참으로 새로운 말인가를 의아해 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런 말을 좀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틀림없이 무시되는 자기 자신의 일만을 했고 주님의 뜻을 어겼을 것입니다. 가인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권고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신 바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물론 행복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전혀 이로운 적이 없는데, 행복이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니이 2:25)이라는 예언자 리하이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주님께 세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보다는 더욱 어려운 계명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들과 장작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로 갔습니다. 그는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손을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러한 행위의 보상

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 봅시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축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 22:16~18)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가 겻세마네 동산에서 겪은 고뇌는 인간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는 겻세마네 동산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주님께서서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참는 것이 지상에 온 주요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이를 참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원하시는대로 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마 28:18)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바울의 기록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히 12:2)가 되셨으며, 주를 받아 들이는 자는 모두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였을까요? 그것은 다만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참된 희생은 하늘의 축복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왜 그러한 일이 생기는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으며 이것을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주님의 사업을 위해 요구되는 희생을 기꺼이 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은 신앙에 관한 여섯 번째의 강좌에서 이 중요한 주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생각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그러한 생각 없이는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으며… 만일 그들이 추구하는 진로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신이 곧 지쳐 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게 성임하셨다는 것은 그가 희생을 하였기 때문이며,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 알 수 있는 것도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희생하므로써 가능한 것이다…”

“인류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얻은 것도 그가 희생을 하였기 때문이다. 의로운 아벨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기

에 받아 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은 오로지 회생을 하므로써만이 얻어질 수 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한 사람의 후손이며 후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로써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들이 선조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회생을 치루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들여질 수 있다는 지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생을 한 자는 그들이 한 행위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간증을 갖게 될 것이다. ...

“그러나 하나님께 이러한 회생을 바치지 못한 자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운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나 의견이 어떻든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의심과 불안이 있는 곳에는 신앙이 없고 있을리도 없다. 왜냐하면 의심과 신앙은 동시에 같은 사람에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심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없으며 확고한 신앙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약하게 된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기 위하여 마주치게 될 운갖 반대, 고난, 역경 등을 이겨 나갈 수 없게 된다. 그들의 마음은 약화되며 그들의 적은 더 큰 힘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신앙에 관한 강좌, 1891년 6:2, 4, 7, 8, 9, 10, 12)

이상의 말씀으로 희생이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어 자기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에 필요한 신앙과 확신을 얻도록 마련하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희생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희생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매우 분명한 예는 될 수 있으나 주님께서 오늘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현대적 의미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십일조 즉 오늘날과 같이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인플레이 현상이 지배하는 때에 요구되는 희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나라와 지상의 모든 나라에 있어서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서 온갖 자극제를 다 쓰고 있는 오늘날 지혜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산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조롱을 당하고 무시되나 성도들이 준수해야 할 원칙입니다.

선교 사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젊은 시절에 학업을 중단해야 하고 군 복무를 늦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얼마 전에 선교사의 부름에 관해서 19세 청년과 접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형제에게 주님께서 형제님이 이러한 길을 택하기를 바라라고 계신다고 말하자 그는 “그렇지만 학교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렉토 장로님?”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 늦어지지요. 그러나 형제님의 스테이크에서 열심히 일하는 열 두 명의 젊은이도 벌써 선교사를 마쳤고 형제님의 친구 몇 명을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밤을 갖는다는 것도 월요일 저녁에 축구 시합이 있거나 다른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는 희생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희생이란 그 전과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완전한 일부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희생은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다 줍니다. 희생없이는 아무런 축복도 기대할 수 없으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도 옳은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봉사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려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을 지니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봉사하며 다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이는 그가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가 살아 계셔서 위대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말일에 지상에 그의 교회를 다시 세우셨다는 것과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예언자를 모시고 있으며 그분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죠셉 필딩 스미스라는 것과 이곳은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라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이 교회에 주어지는 계시로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증거합니다. 아멘.

노동의 참된가치

웬델 제이 애쉬튼



지난 주 아내 벨바와 나는 시내에서 40마일 떨어진 곳에서 열리는 어느 만찬회에 한 쌍의 부부를 우리 차에 모시고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막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전화로 좀 늦어질 것 같다고 알려 왔습니다. “신문 배달차가 도중에 고장이 나서 우리 애들이 배달하는 신문이 좀 늦어질 것 같군요. 배달차가 오면 우리 차로 받아다가 애들이 빨리 배달할 수 있게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배달차가 오면 즉시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주인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약간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집에 가서 세 명의 아이들(가장 어린 아이는 8살)이 배달 준비를 하느라고 바쁘게 신문을 챙기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부모는 일의 순서를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과 아들들의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공학과 법률에 학위를 가진 사업가로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한 바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스테이크 상호 부조회 회장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부모들이 아홉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노동의 진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자녀의 삶은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노동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므로 행복하고 건전해 질 것입니다. 일전에 나는 마이아미 신문을 통해 165세가 된 지금은 쉬고 있는 한 목자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라리 미스리모프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터키와 러시아와 이란의 경계인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의 코카서

스 산 중에서 지냈습니다. 코카서스 산맥은 높이가 18,468피트이며 10,000피트까지는 산길이나 있어서 사람이 오르내립니다.

미스리모프는 아직도 나무를 합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라고 그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스리모프의 집은 러시아 아젤바아드젠이란 곳에 있는 해발 6,000피트의 바자부 산중에 있습니다.

그 기사는 그 노인이 아직도 “과수원에서 땅을 파고 있는데, 이곳은 그가 평생 동안 여러번 식물을 재배하던 곳”이라고 말해 줍니다.

“굶임없이 일하고 맑은 산 공기를 마시고 적당히 음식을 취하면 누구나 장수할 수 있다.”고 미스리모프 노인은 말하는데, 그는 술이나 담배는 절대로 하지 않고 다만 닭고기 국과 치즈와 아이랜이라고 불리는 우유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은 므두셀라로 알려지고 있다. 성경은 그가 969세에 죽었다는 것 이외에도 그에 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줍니다. 창세기는 그의 손자인 노아는 므두셀라와 거의 비슷한 950세까지 살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한”(창 6:9)에언자인 노아에 관해서도 많은 사실을 말해 줍니다.

노아는 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과 같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의 부친인 라멕은 아들들 노아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창 5:29)

노아는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600살에 방주를 완성하였고 그 때에 매홍수가 있었습니다.

라멕이 한 말 중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다는 말은 아담에게 주신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창 3:17)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창 3:19)

주님께서서는 아담을 저주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그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오랜 동안 인간은 땀을 흘려 노동하므로서 식물 이상의 것들을 받아 왔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받아 왔던 것입니다.

강인한 프리시아의 정치가 비스말크는 한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여 그대들에게 줄 수 있는 단 세 마디의 충고는 일! 일! 일! 을 하라는 것입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신문을 접고 있는 이 어린 형제들을 바라 보는 것이야 말로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그들은 노아와 같이 장수는 하지 못할 지라도 그들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노동의 참된 가치를 가르쳐 준 현명하고 사랑에 찬 부모 때문에 보다 깨끗하고 충만하고 빛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 마이아미 헤랄드지, 1971년 3월 18일자, 유포 아이 워싱턴 피터 제이썬 기자됨.

2 비스말크, 오토 에드워드 폰(1815~1898) 독일인 통일론.

141차 반 연차 대회에서 행한 연설



사랑으로 너르를 섬기라

에스 딜워스 영 회장 칠십일 제일 정원회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와드나 지부는 많은 회원에게 활동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직을 위해서 공식적인 직분이나 구체적인 책임이 주어지지 않아서 일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도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도 스테이크에 속해 있고 와드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위해 계획된 분반이나 기타 모임에 참석하도록 부탁을 받으나 집회가 끝나면 이 조직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부탁이나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대개의 경우 자신은 버려진 사람이며 자기의 재능은 이곳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다고 느끼게 마련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책임이 있는 부름을 받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갖는 책임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침례와 성약을 통해 다 같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한 부름 때문에 조직상의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씀에서 성도의 의무에 관한 것을 잠시 찾아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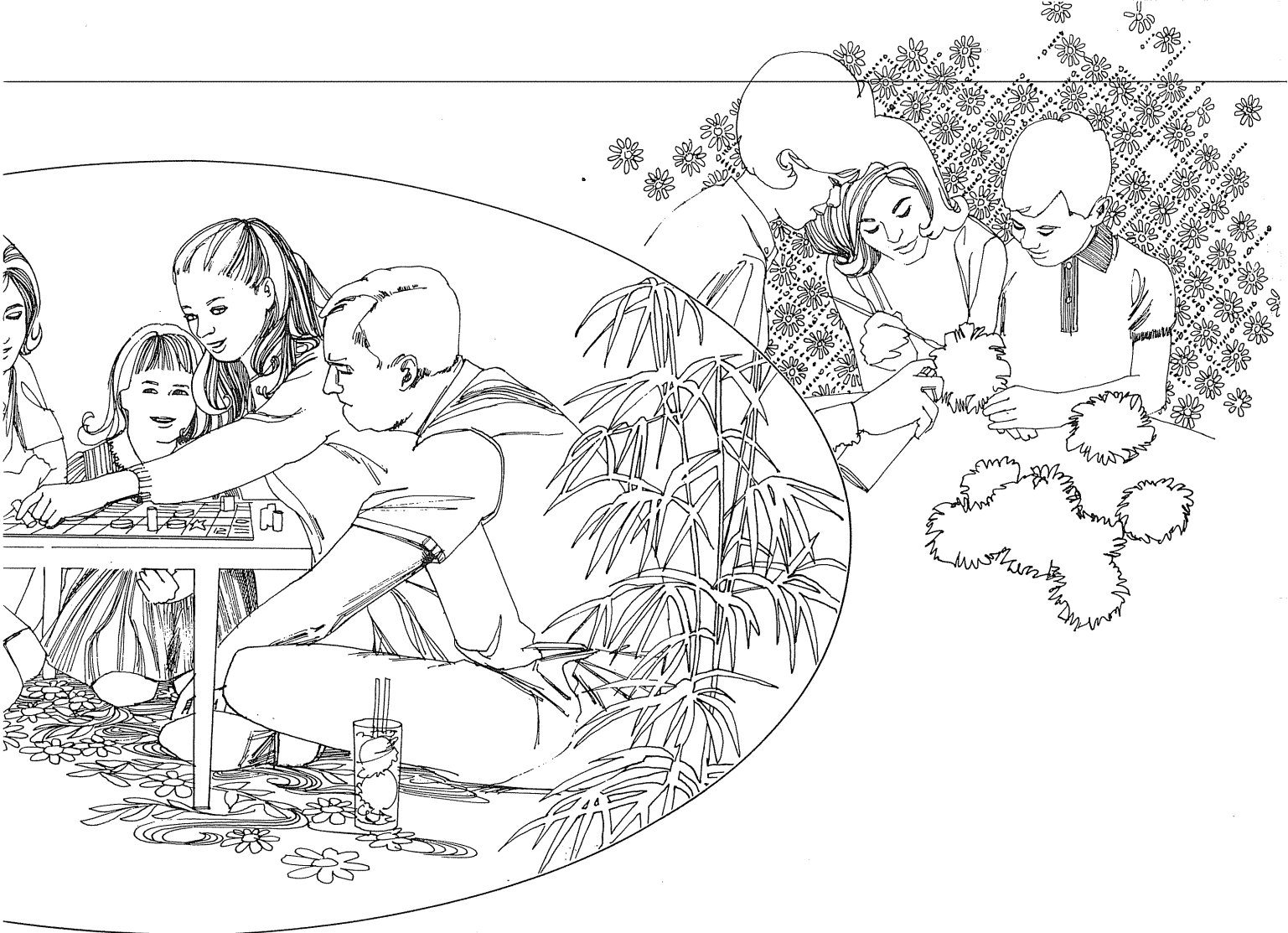
엘레미야는 반항적이고 거처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렘 22 : 3)

왕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앎이 아니냐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렘 22 : 16)

이러한 사상을 주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 후에 되풀이 하셨는데 그는 백성들에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 : 8)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엡 4 : 32 참조)

엘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소리내어 주께 외치며 그들 자신과 이웃의 복리를 위해 항상 주께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말한 대로 기도하는 것으로 족하다 생각지 말라. 너희가 이 모두를 행



한 뒤에도, 궁핍하고 험벗은 자를 외면하며, 병들어 신음하는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엇이랴도 가졌을 때 궁핍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소유를 나누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정코 너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의 기도는 헛된 것이다. 너희에게 유익을 가져 오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믿음울 거역하는 위선자 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자애롭기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너희는 정제하는 자가 쓸모가 없어 털어 버리는 찌꺼기와 같으리니, 못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히게 되리라.”(골 34 : 28~29)

이러한 문제에 관해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는 수가 많으며 초기에 주어졌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일찌기 주어진 첫째되는 의무였습니다. 그 다음이 궁핍하고 슬퍼하는 자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은 있으나, 교회에서 공식적인 책임을 맡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내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권고와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움이란 반드시 돈만을 의미하지 않고 시간, 관심, 개인적인 격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움은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랑을 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병이 난 어린 아이를 가진 젊은 어머니에게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한시간 동안만이라도 책을 읽어 준다든지 음식을 준다든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준다면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가정에서 그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어느 환자를 돌 볼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어느 훌륭한 자매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10 시까지 형제님 댁에 와 있겠습니다. 그 시간을 잘 알고 있다가 6 시에 환자를 찾아 가면 4시간 동안은 형제님께서 쉬도록 하세요.” 정말 그녀는 훌륭한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환자는 물론 나에게도 새로운 기쁨과 미소와 생각을 갖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고독 속에 있으나 이것을 감추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이나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한 사람,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고향을 떠나 온 독신 여성들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가정의 밤에는 외롭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상심했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초대되어 위안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아무 직책도 맡지 않았지만 훌륭히 교회의 일을 도운 한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주 주일학교와 성찬식에 참석하였으나 자기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안고 돌아 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녀는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자매를 알게 되었는데 이 자매는 주일날 교회까지는 갔으나 용기가 없어서 집으로 되돌아 가곤 하던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이 자매를 도왔고 안심시켜 집회에 참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는 어느 비회원 형제를 알게 되어 그가 주저하지 않고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목적이 없이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 자매들과 사귀고 그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다는 욕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든 사람에게도 관심을 보여 선교사가 될만한 연령에 이른 젊은 형제에게는 선교사가 되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자기가 감독의 지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워드 내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가정에 어린 아이나 환자나 노인이 있다면 그런 가정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어느 조직의 회장단이나 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 사로서 많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위안과 도움과 관심을 바라는 사람에게 준 헌신적인 도움으로 하늘에 좀더 가까이 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조직에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나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개인적으로 지시하신 바대로 가난하고, 실망하고, 궁핍하고, 병들거나 낙담한 자를 돕는데 사용한 봉사 시간을 기록하면서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일을 맡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매주 기도의 집에 가서 기도를 할 것을 계시는 요구하고 있

습니다. 이때 우리는 구세주이신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새롭게 하며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약을 맺었으므로 우리는 행동을 통해 부지런히 이러한 사랑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워드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지 않는 회원이라 할지라도 이 위대한 인류의 구원의 사업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스테이크나 워드나 보조 조직에 관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부러운 눈으로 보고 앉아 있지 말고 심신으로 약화되어 있고 희망이 없고 용기를 얻어야 하며 지상에 하나님 왕국의 건설을 위해 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구원합시다.

나는 가정 복음 교사가 이러한 요구에 책임이 있으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요구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방문 교사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감추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신권은 모든 면에서 주도면밀하나 그러한 책임은 조직적인 신권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것이라는 점을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소홀이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옆집이 바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교회의 회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자신의 어려움을 감독에게 절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도움과 개인적인 권고의 책임을 갖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에게 적절히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야고보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27)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닌 연고니라.”(교성 52:40)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그의 거룩하신 아버지도 역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온갖 마음을 다하여 죠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을 살아 계신 예언자로 지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그의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돌로 끓인국

레온 캐스텔 앤더슨 씀 제리 하스톤 그림

헛

1972년 6월호

한 노인이 문앞에 서 있었다. 옷차림은 초라하게 보였으나 수염과 머리는 단정하게 빗질이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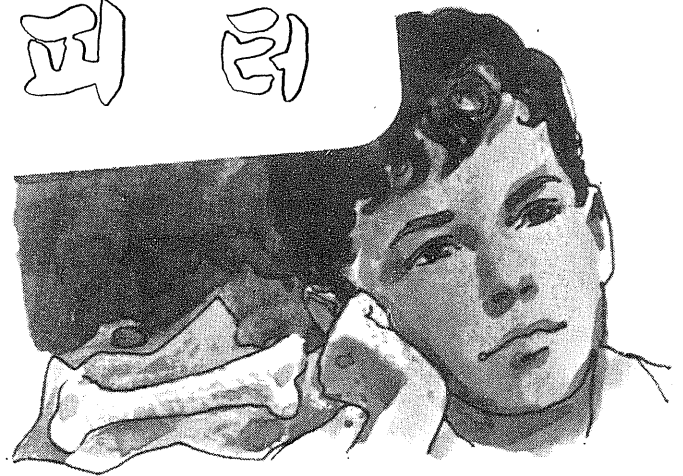
“밥을 달라고요?”하면서 집주인 아주머니는 날카롭게 쏘아 부치고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저에게 동냥을 한담”하며 말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자 노인은 “내가 도움을 줄지도 모르지요”라고 말했다.

“도움이라니? 어떻게 도움을 준단 말이요? 우리 먹을 거라곤 없는데. 애들아, 지하실에 가서 있는 걸 가져 오너라.”

어머니는 딸들이 가지고 온 조금 밖에 없는 야채를 식탁 위에 놓았다. “보세요 당근 하나와 도마도, 양파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로 배고픈 다섯 아이를 어떻게 먹이겠어요. 애 아빠는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셨답니다.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지요.” 라고 그녀는

피터



말을 계속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물을 끓일 솥과 요리할 불이랍니다.”라고 노인은 말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술의 돌로 돌국을 끓일 것입니다.”

“돌국이라니요! 그것도 먹는단 말입니까?” 하고 말했다.

노인은 손을 들고는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그 불가에 앉아서 있을 테니 아이들을 한 명씩 저에게 보내 십시요.”

말이인 피터가 먼저 갔다. 그는 솔 속에서 물이 끓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보지 못했다.

“너에게는 훌륭한 무엇이 있단다. 너는 이곳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존재란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네가 가진 힘을 나누어 주게 된단다.” 그 노인은 식탁 위에서 가지고 온 뼈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 같았으나 그 말을 들은 피터는 느끼는 바가 있었다.

“그렇다. 아빠가 지금 멀리 가 계시고 나는 장남이며 엄마는 나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피터는 생각했다. 피터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뛰어 나가서 썰 나무를 더 가지고 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를 쌓아 올렸다. 그 노인은 끓는 물에 뼈를 넣었다.

다음은 캐사린 차례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실망의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빨간 머리를 초조한 듯이 흔들며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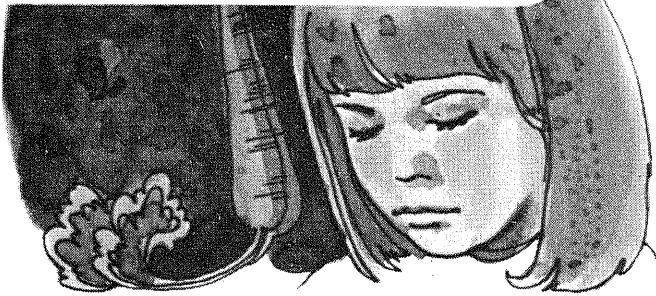
의 귀를 잡아 당기고 캐사린의 머리카락을 만져 보고 벨스를 손으로 찌르며 올가의 옆구리를 치며 지나갔다.

“정말 사랑스럽구나. 네가 없어서는 절대로 안되지. 너는 자신을 좀 알려지게 해야 한단다.” 라고 노인은 중얼거렸다. 그 노인은 양파의 껍질을 까면서 “넌 울지는 않을 거야.”라고 말을 덧붙였다.

에릭은 이 말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았다. 양파의 냄새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그는 피터가 그의 꼬집힌 귀를 비비는 것을 보았다. 에릭은 곧 형이 나무 쌓는 것을 돕기 위해 뛰어 갔다. 노인은 양파를 다 까서 끓는 솔에 넣었다.

그는 평범한 얼굴을 가진 어린 여동생 올가를 못 본 것 같았다. 그는 다만 혼자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했다. “가끔 걸보기가 평범하면 속은 충실하고

캐사린



“야 참 훌륭하구나.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한데. 넌 참 모든 것에 아름다움을 더해 주지.”

그는 당근을 보고 말을 하였던 것 같은데 캐사린은 자기에게 한 말인 것처럼 듣고 의아해 했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밝아지고 실망의 빛이 사라졌다. 그 노인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막내인 벨스에게 달려가 주위를 빙빙 돌며 장난을 했다. 그 노인은 끓는 물에 몇 개 안 되는 당근을 넣었다.

다음은 세째 동생인 에릭의 차례였다. 그는 피터

에릭



달콤한 범이지.”라고 그의 손에 들고 있는 감자를 보며 말했다.

올가는 기분이 좋았다. 만일 노인이 그녀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아름다운 캐사린을 질투한 것이 부끄러워서 그녀에게 다가 가서 미소를 짓고 즐겁게 말을 걸었다. 그 노인은 감자의 껍질을 벗기고 조각 조각 잘라서 끓는 물 속에 넣었다.

이번은 벨스의 차례인데 그는 주춤주춤하고 있었다. 그는 이 노인을 보고 좀 놀란 것 같았다. 누구든

지 나를 어린이로 보니 난 아무 소용도 없지 않아.라고 그는 생각했다. 노인은 벨스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난 벨스가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치는지 알지?”라고 그가 물었다. 벨스는 생각했다.

“소금 아니예요?”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는 식탁 위에 있는 소금을 갖다 노인에게 주었다.

“잘 맞추었으니 이국 맛좀 볼래.”하며 노인은 말했다.

벨스는 자신이 생겼다. 그는 그런 대답을 했으므로 이제 애기가 아니였다. 그리고 그는 신비로운 돌국을 먼저 맛보았던 것이다.

엄마가 냄새를 맡으며 안으로 들어 왔다. “국 냄새가 나네.”라고 엄마는 의심스러운 듯이 말했다.



“맛을 좀 보시겠어요.”노인이 말했다. “좀 더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큰 스푼으로 떠서 마셨다. “아” “음”하며 엄마는 말했다. 생각할 사이도 없이 그녀의 손은 식탁으로 향했고 고추가루를 갖다 국에 쳤다.

“그래, 정말 맛이 좋구나. 온갖 양념이 다 들어간 것같은 맛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머니는 그를 쳐다 보았는데, 이는 엄마도 그 맛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노인은 다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다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식탁에 둘러 앉았고 노인이 주빈이 되었다. 엄마는 맛있게 끓는 국을 한 그릇씩 담아 이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국을 다 먹었을 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왔고 아버지가 들어 오셨다. 아버지는 식량이 든 큰 가방을 잔등에 지고 계셨다.

“홍수를 만났었어.”하며 자기가 이처럼 늦어진 것을 설명했다. 그러나 식구들은 모두 그를 환영하느라고 야단이였다. 얼마 후에 그들은 방문객과 그의 마법을 설명했다.

“그래 그럼 나도 맛 좀 볼까?”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가 맛을 보시더니 한 그릇 더 달라고 청했다.

“이제 없는 걸요.”라고 엄마는 마지막 한 국자를



부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그 노인을 향해 “그런데 그 맛을 내던 돌이 어디로 가버렸네요.”라고 말했다.

그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기적을 낳아 줍니다.”

“그 노인은 마법을 남겨 둔 채 그 밤에 어디론가 버렸다.

아빈아다이

마벨 존스 개뿔 옮김
개리 캣프 그림

“아빈아다이란 자는 누구길래 나와 나의 백성들을 심판한단 말이나? 도대체 주란 누구길래 나의 백성들에게 그런 재앙을 내린단 말이나?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아빈아다이란 자를 잡아 오너라. 당장 죽여 버리겠다.” 라고 사악한 왕 노아가 소리쳤다.

아빈아다이는 선량한 사람이며 주님의 예언자였다. 그는 악한 노아 왕이 저지르는 일들을 주시해 왔었다. 그는 왕이 거대한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부당한 과세를 징수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가 화가 난 것은 백성들도 그 왕처럼 악해지고 주님을 멀리 하기 때문이었다.

주님께서 아빈아다이가 백성들에게 나가 회개할 것을 가르치라고 명하시자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 줄 것을 간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노아 왕을 따랐기 때문에 오히려 아빈아다이에 대해 화를 내며 노아 왕에게 달려 가서 아빈아다이란 자가 왕과 제사들과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였다. 왕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아빈아다이를 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아빈아다이는 도망하여 잡히지 않았다. 그는 2년간을 숨어 지냈다. 그러다가 그는 변장을 하고 다시 백성들에게 나아 갔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아빈아다이는 그들이 사악함 때문에 결박되어 살해되고 짐승의 밥이 되리라고 경고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대단히 화가 났다. 그들은 그를 잡아 노아 왕 앞에 데려 갔고 왕은 그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했다. 왕은 모든 제사들을 불러 모으고 아빈아다이를 그들 앞에 데려 오게 하여 그들에게 그토록 말을 한 그를 재판하게 되었다.

제사들은 이 죄인에게 질문을 하였고 사실을 부인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어떤 성구를 해석해 보라고 물었다. 아빈아다이는 그들이 성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제사나 교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너희는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치 않아 우매하니, 도대체 너희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

느냐.” 라고 물었다.

제사들이 왕의 명으로 그를 잡으려 하자 그는 “나를 다치지 말라. 너희가 내게 손을 댈진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리니,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전하게 하신 말씀을 아직 다 전하지 아니 하였음이요.” 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제사들은 몹시 두려웠는데 이는 아빈아다이와 함께 한 주님의 영을 그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감돌았고 권능을 지니고 말을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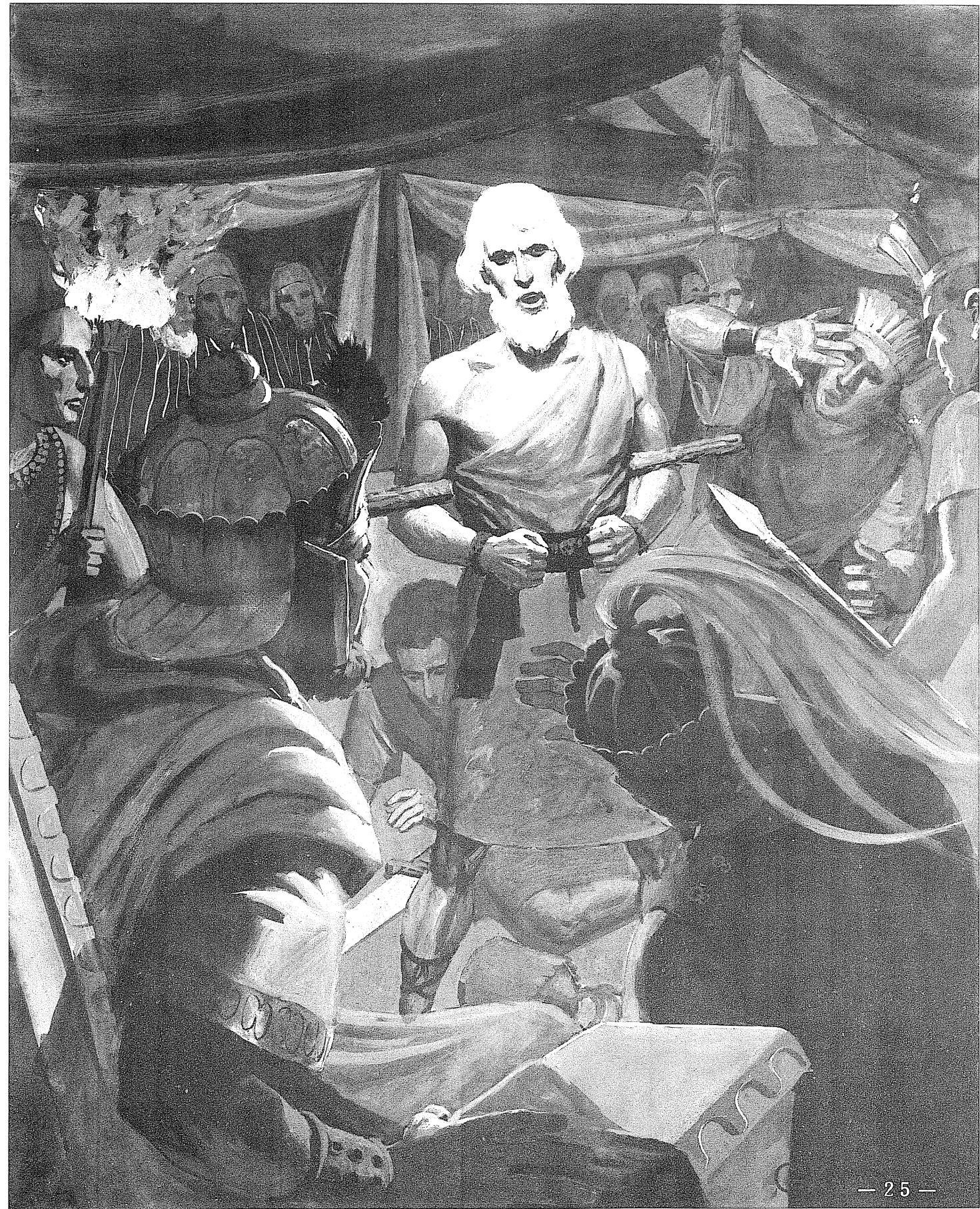
한참 동안 노아 왕과 제사들이 아빈아다이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 아빈아다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했고 그가 지상에 와서 백성들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나 그는 다시 사시므로 그의 죽음이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빈아다이는 다시 결박되어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는 자기가 한 모든 말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선고를 받았다.

아빈아다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참으로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가 한 말을 거두지 아니하리니 이 말들이 곧 너희에게 대한 증거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죽일진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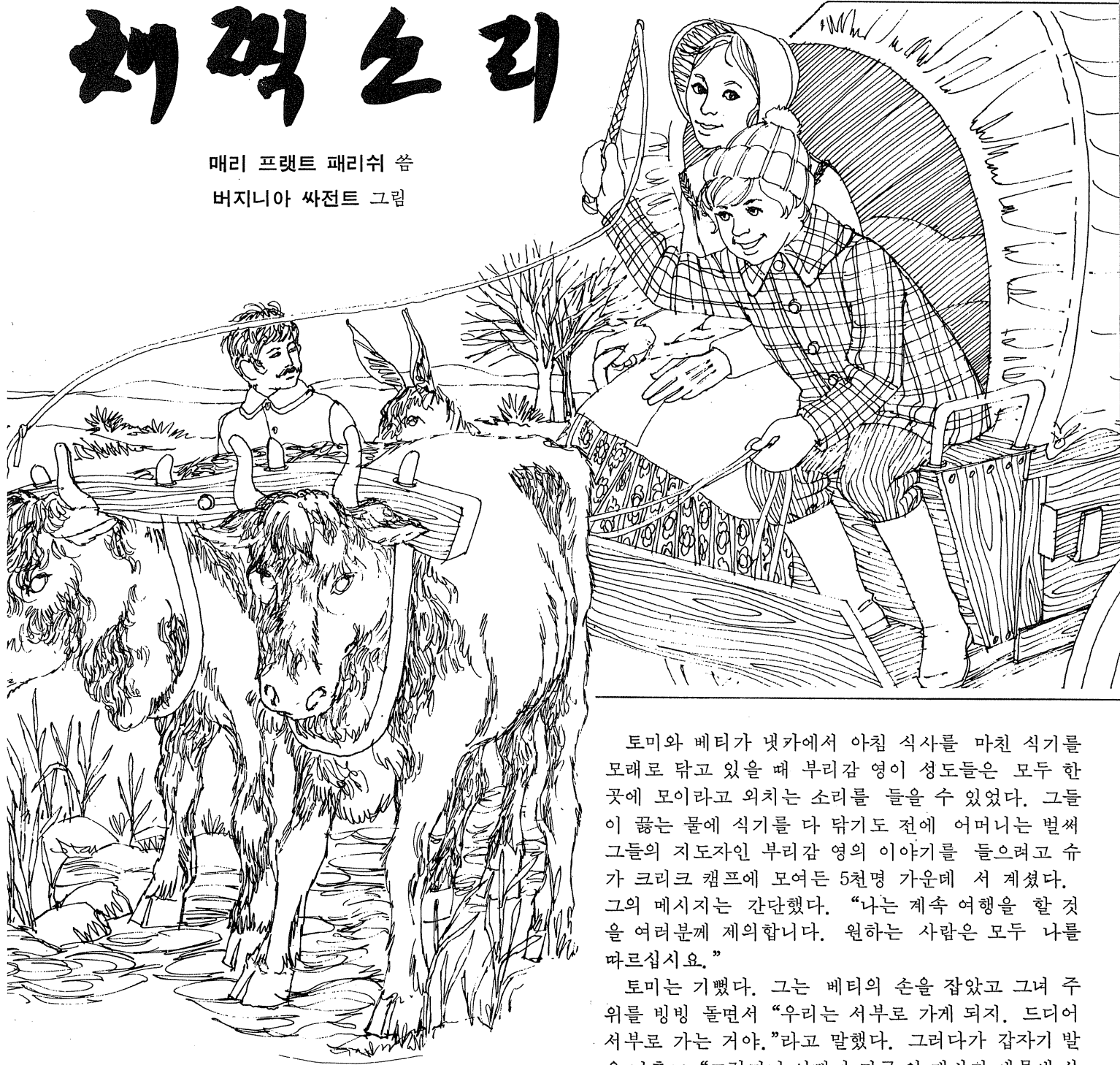
노아 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내려 진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으나 제사들은 그를 죽이기를 바랐다. 그래서 왕은 아빈아다이를 죽이도록 허락했다. 그리하여 제사들은 나뭇단에 불을 붙여 그를 태워 죽이려 했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아빈아다이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자들에게 보응을 내리시느니라. 오 하나님이지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빈아다이가 이 말을 마치고 불에 타 죽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말씀을 죽음으로 인봉하였던 것이다.



채찍소리

매리 프랫트 패리쉬 씀
버지니아 싸전트 그림



토미와 베틀이 냇가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식기를 모래로 닦고 있을 때 부리감 영이 성도들은 모두 한 곳에 모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이 끓는 물에 식기를 다 닦기도 전에 어머니는 벌써 그들의 지도자인 부리감 영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슈가 크릭 캠프에 모여든 5천명 가운데 서 계셨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나는 계속 여행을 할 것을 여러분께 제의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를 따르십시오.”

토미는 기뻐했다. 그는 베틀의 손을 잡았고 그녀 주위를 빙빙 돌면서 “우리는 서부로 가게 되지. 드디어 서부로 가는 거야.”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발을 멈추고 “그렇지만 아빠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부로 갈 수는 없지 않아.”라고 중얼거렸다.

토미 어머니는 그의 얼굴에 나타난 실망의 빛을 볼 수 있었다. “아빠는 내일 오전까지는 돌아 오실거야. 아빠는 오늘 세인트 죠셉에서 일을 마치고, 우리는 여기서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아빠가 돌아 오시면 즉시 떠날거란다.”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그림설명 : 마침내 신호가 울렸다.
 그 순간 밴드가 연주를 시작했고
 말 채찍 소리와 함께 토미의 마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빠가 오셨으니 이제 우리도 서부로 떠날 수 있겠지요. 벌써 반 이상이 떠났어요.”라고 토미가 물었다.

“나도 떠나기 전에 우유를 다 저어서 버터를 만들겠어요.”라고 베틀도 말했다.

“그렇지만 빵을 다 구울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한단다.”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토미의 아버지는 웃으셨다. “아마 오늘 저녁에는 떠나지 못할 것 같다. 난 세인트 조셉에서 마차 한대를 더 샀단다. 그래서 오늘에야 오게 된거야. 나와 함께 간 사람은 내일 오기로 되어 있어. 그 마차는 옥수수과 밀가루를 가득 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덮을 것을 만들어야 한단다.”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아빠 그 새 마차는 누가 몰고 가요?” 하며 토미가 물었다.

“엄마가 몰고 가게 될거야.” 아버지는 대답하셨다.

“저도 할 수 있어요.” 토미가 다시 말했다.

토미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이윽고 “그래 너도 몰 수 있지. 그럼 너도 한번 그걸 몰아 보렴.”하고 말씀하셨다. 마차에서 말을 풀면서 토미의 아버지는 고삐를 잡는 법과 말이 놀라지 않을 정도로 채찍질을 하는 법 등을 가르쳐 주셨다.

토미는 마차를 꼭 자기가 몰고 가고 싶었기 때문에 오후는 열심히 일을 했고 다음 날 아침 일찌기 출발하기로 작정했다. 그는 아버지가 세인트 조셉에서 가지고 오신 여섯 개의 나무판을 냇물에 담가 두었다. 이것이 물이 배어 부드럽고 휘어지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마차 양쪽에 이나무를 대서 훌륭한 덮개를 만들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후에 음식을 담은 크고 깊은 찬장을 만드셨고 이것을 마차의 뒷 부분에 고정시켜 놓았다. 아버지가 세인트 조셉에서 가지고 오신 닭

토미는 마음이 가라 앉았으며, 부리감 영 대관장이 5백여대나 되는 긴 마차 부대에게 출발 신호를 보내자 그와 베틀은 많은 친구나 이웃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보냈다. 마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들은 어머니에게 달려 와서 준비할 것이 없는지 물어 보았다.

“넌 가서 우유를 계속 저어서 버터를 만들도록 해라.” 어머니는 베틀에게 말씀하셨다.

나무로 만든 이 우유를 젓는 통은 뚜껑이 달린 작은 술 통과 같이 생겼다. 뚜껑 가운데에 있는 구멍을 통해 베틀은 휘젓는 막대기를 넣고 이 우유가 노란 색의 버터가 될 때까지 저었다.

베틀이 이런 일을 하는 동안 토미는 통에다 물을 담아서 그들이 샘이나 강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야영을 하더라도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였다. 토미가 냇가에서 올라 올 때에 마차 한대가 캠프로 향해 오는 것을 보았다.

“아빠다!”라고 그는 소리치며 손에 들었던 물통을 놓고 달려 갔다.

그림설명 : 밴드의 지휘자가 토미의 아버지를 보자 그에게 트롬본을 넘겨주었다. 토미는 아버지가 연주를 시작하자 몹시 기뻐했다.



장에는 함께 사오신 닭 여섯 마리를 넣어 반대 쪽에 매달아 놓았다.

베티와 어머니는 아버지가 만드신 찬장에다 그들이 매일 먹을 음식과 식기를 정리해 놓았고 마차에다 쇠로 된 솔을 매달아 놓았다. 밀가루 반죽이 끝나고 어머니가 빵을 만들었고 베티는 비스킷을 만들어 오븐에 넣고 구웠다. 비스킷이 맛있게 구어지자 가족은 함께 모여 식사를 했고, 이때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윙트 밴드구나!” 하며 토미가 소리쳤다.

“그렇단다.” 하시며 아버지가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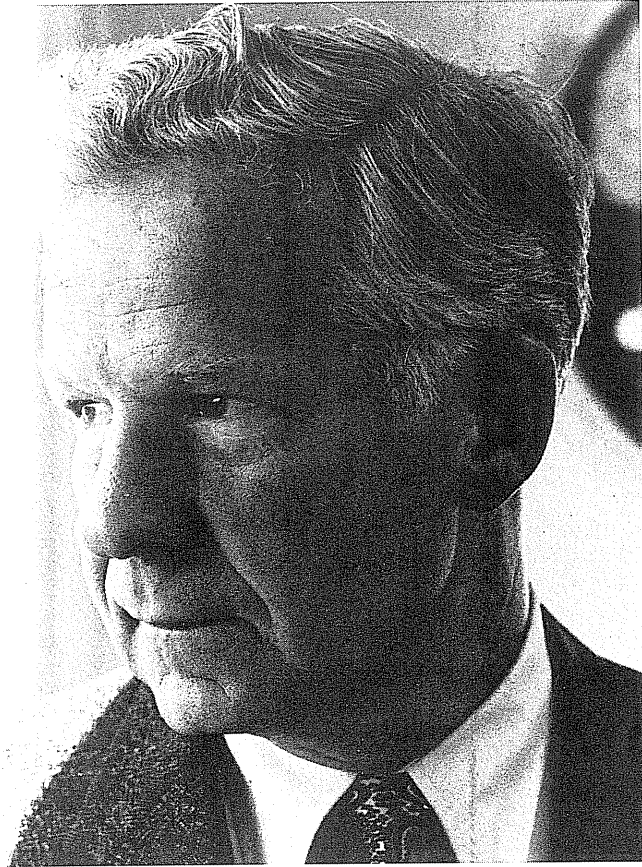
“그들을 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도록 하자꾸나.” 하시며 아버지는 토미의 손을 잡고 나부 시가지로 뛰어나갔다. 슈가 크리크를 곧 떠나게 될 이천여명이 모두 나와 밴드를 맞이해 주었다.

밴드의 지휘자가 토미의 아버지를 보자 그에게 트롬본을 넘겨 주었다. 토미는 아버지가 연주를 시작

하자 몹시 기뻐했는데, 이는 아버지가 트롬본을 팔기 전에 밴드부의 일원이었고 그 당시 나부에서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밴드는 큰 마당으로 행진해 갔으며 많은 사람들이 음악에 발을 맞추어 대열을 따랐다. 이 밴드 부원들은 식사를 한 다음 이곳 마당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다음 날 아침 토미는 다른 날과는 달리 일찍 일어났다. 그는 자기가 마차를 몰고 간다는 생각에 너무 흥분해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마침내 마차 준비가 끝나 그는 어머니 옆에 올라 탔고 서부로 향해 출발하는 서른 두 대의 마차에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신호가 울렸다. 그 순간 밴드가 연주를 시작했고 말 채찍 소리와 함께 토미의 마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차에 탄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며 10마일이 떨어진 이스라엘의 본 진영에 도착할 때까지 노래를 그치지 않았다.



멜빈 제이 애쉬톤

십이사도
도일 엘 그린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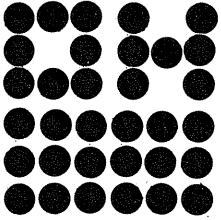
1830년 교회가 조직된 이래 수 많은 남자 회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과 이 경륜 시대의 십이사도 정원회의 구성원으로 지금까지 일흔 아홉 명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되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것은 높고 성스러운 부름이며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마

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예언자 조셉 에프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십이사도의 의무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지상의 모든 주민에게 복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부름은 대

회 때 오게 되는 것이 상례이나 십이사도가 지닌 막중한 책임과 무거운 짐 때문에 일흔 아홉번째의 사도로 지명된 멜빈 제레미 애쉬톤 장로의 부름은 1971년 12월 2일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의 서거 한 달만에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대회가 아닌 기간에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스테이크 대회를 통하여 그의



15세의 젊은 맬빈. 이 사진은 그가 개인의 건강에 관해 쓴 기사와 함께 데저레트 뉴스 지에 실렸었다. ㊦

이름이 소개되어 지지를 받았고 지난 4월 대회에서 전 회원의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애쉬튼 장로의 지명이 발표되자마자 그는 기자들로부터 이러한 부름이 충격적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결코 충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놀라긴 했지만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사람이라면 부름을 받고 충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의 부름은 충격적이거나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스러운 사도직에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애쉬튼 장로가 지금까지 닦아온 봉사과 헌신에 더욱 가까이 들어서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사실 그의 전 생애와 그의 선조의 생애는 주님께서 그의 종에게 지도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시켰는가를 알려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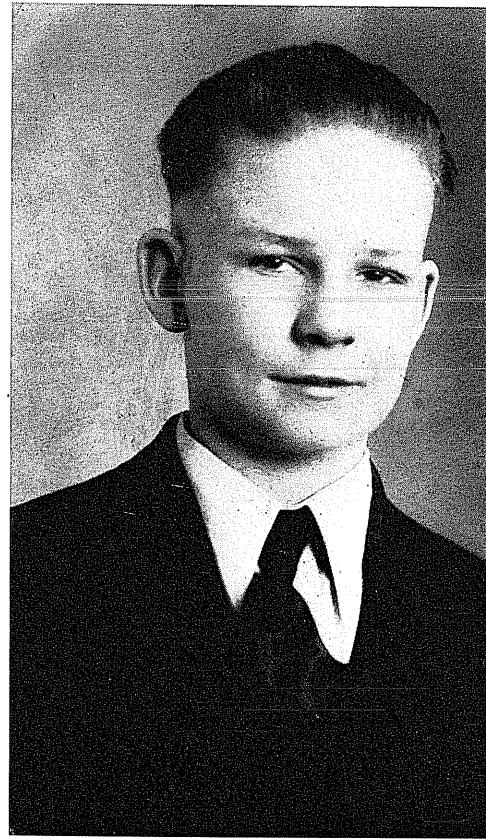
애쉬튼 장로의 선조들은 머나먼 곳에서 회복된 복음의 진리를 인식한 초기의 개종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증조부인 에드워드 애쉬튼은 1821년 북 웨일즈에서 태어났으며,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즉시 이를 받아 들였으며 1849년 28세에 침례를 받았고 다음 해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

다. 친지와 고향을 남겨둔 채 그는 성도들과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부터 애쉬튼이라는 이름이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애쉬튼 장로의 부친인 맬빈 오는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였고 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단, 스테이크 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38년부터 1946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의 관리 감독단의 일원으로 봉사했습니다.

애쉬튼 장로의 외증조부인 토마스 이 제레미는 역시 웨일즈에서 초기에 개종을 했으며 1849년 최초로 미국으로 이주한 성도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존 제레미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영특한 사람으로 일찌기 부인을 잃고 혼자 세명의 딸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 딸 중의 한 분이 애쉬튼 장로의 모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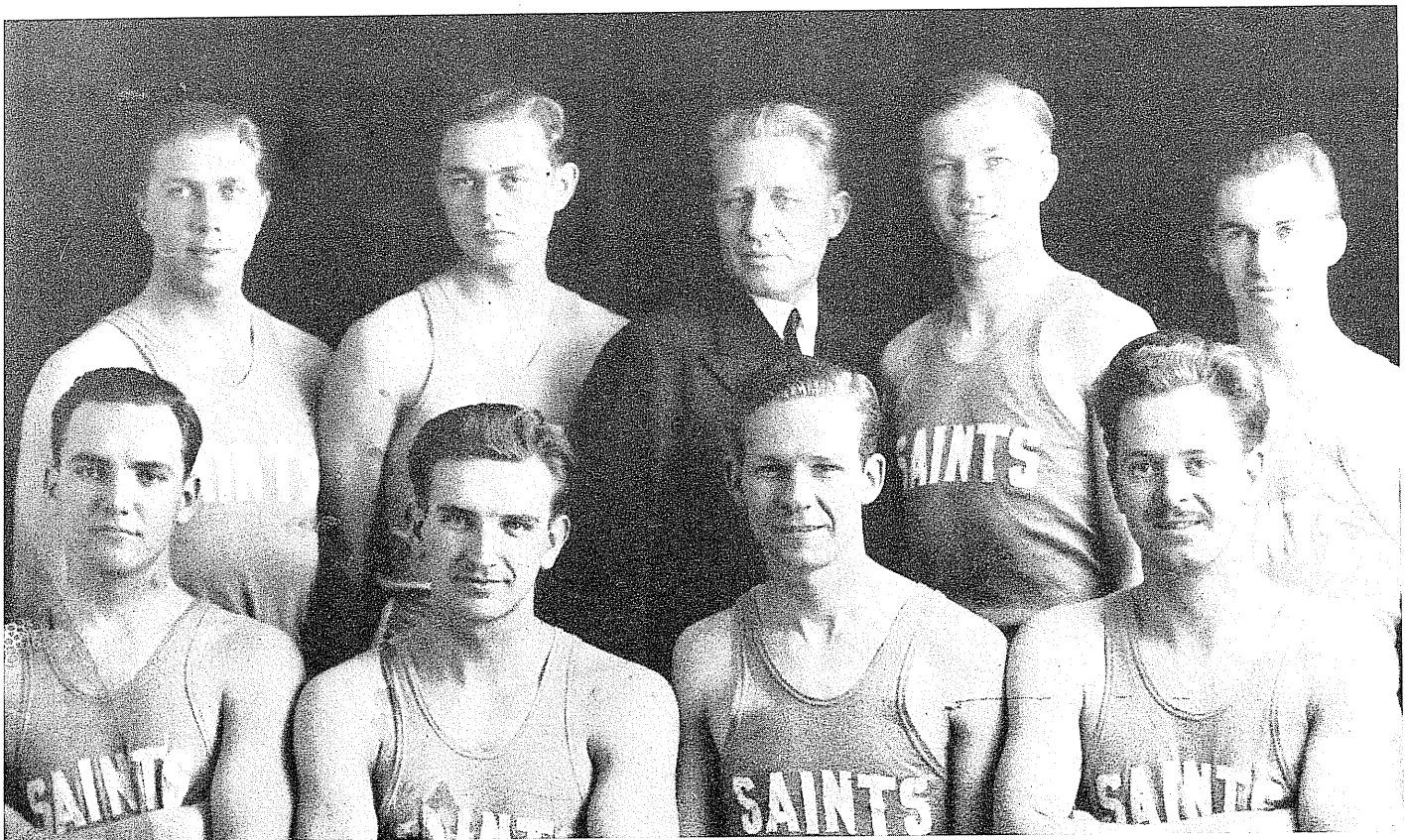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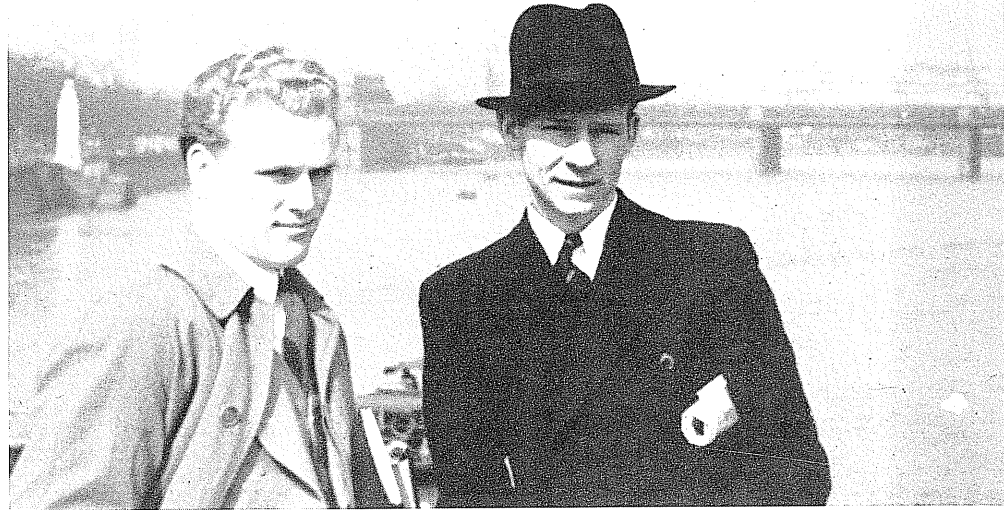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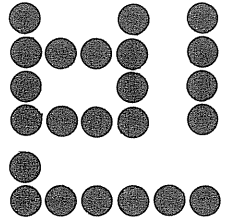
맬빈 제이 애쉬튼 장로는 1969년 10월 총 관리 역원인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을 받아 교회의 사회 봉사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일해 왔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 그는 소규모의 구룹, 불행한 자, 무혜택자, 인권을 유린 당한 자 등을 위하여 일해 왔고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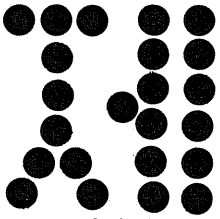


맬빈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 일했다. ㊦

영국에서의 선교 사업을 위해 떠날 때 그의 나이는 21세였다. 런던의 템스 강변에서 그의 동반자인 엘돈 제이 앤더슨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앤더슨 장로는 지금 솔트 레이크 시에서 연방 판사로 있다. ㊦

오른 편에서 두번 째로 앉은 애쉬튼 장로는 영국 전역을 휩쓴 농구팀의 주장이었다. 양복을 입은 분이 휴비비 부러운 장로이다. ㊦





또한 데저렛 출판사의 사장과 데저렛 체육관의 이사로서 21년간 봉사하였습니다. 십이사도 보조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 본부 청남 상향회 회장단 제 1보좌직에 8년 제 2보좌직에 3년, 청남 상향회 본부 임원으로 21년간을 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맡는 동안 그는 교회의 스테이크나 선교부의 젊은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전해 주기 위해서 세계를 순방하였습니다. 그의 새로운 부름은 지금까지 그가 종사해온 일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직분에 부름을 받게 된 맬빈 제이 애쉬튼 장로는 어떤 특별한 재능과 자질을 지닌 분이겠습니까?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대한 끊임없는 신앙, 교회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 이웃에 대한 의심없는 사랑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는 친절하고, 온화하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항상 화평을 조성하는 신사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문제를 예민하게 관찰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라지지 않는 미소와 재치를 지닌 분입니다. 그는 세련되고 위엄이 있는 성품을 지닌 분입니다. 그가 방 안에 들어 오면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그분께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본인과 몇몇 다른 회원은 애쉬튼 장로와 같은 시기(1949년)에 상향회 본부임원으로 부름을 받아 몇년간 그의 발전을 볼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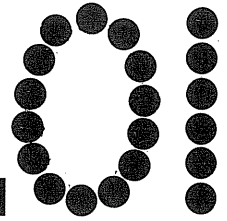


맬빈 오와 알 제이 애쉬튼의 아들과 딸들의 모습(1962).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아프톤 커티스, 애쉬튼자매, 웬델 제이 애쉬튼, 맬빈 제이 애쉬튼, 필리스 가디너, 에리노 베저. 또한 형제인 테드는 17세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다. ㊦

맬빈 제이 애쉬튼과 노마 베르트슨의 결혼(1940)은 교회와 학교의 젊은 지도자를 하나로 결합시켰다. 결혼 일주일만에 이들은 맬빈이 신부를 위해 지은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

있었습니다. 그가 모임을 사회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문제를 분석하거나 기타 많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언제나 그가 곤란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권고나 충고를 하기 전에 이에 관해 심사 숙





고 하며, 견해의 차이를 조정하는데 훌륭한 수완을 보였으며, 신의를 지키는데 모든 성의를 다 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가 교회의 젊은이들과 맺은 훌륭한 관계나 그들을 이해하는 독특한 성품이나 언어를 취사선택하는 재능이나 그들이 반응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이야기를 하는 능력을 잘 지켜 보아 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부탁받을 만큼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에 대한 그의 충성심이나 총 관리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지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특성과 함께 그는 솔직함과 용기를 지닌 분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는 인생의 운동 시합은 물론 실제의 운동 시합에도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의지력을 가진 분으로, 유능한 사업인으로 또 재정가로도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는 관대하고 분별력 있고,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와 30년 이상 정구를 즐긴 사람들은 그가 약속 시간 늦게 코트에 나온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조직적인 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일을 처리할 때 그는 완전한 사업

가가 되며, 놀거나 즐길 때는 철저히 즐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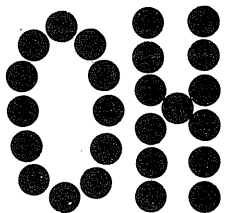
멜빈 제레미 애쉬튼이란 이름을 가진 아기 소년은 1915년 5월 6일 쏘트 레이크 시 부로닝 가 1341 번지에 있는 노란 이층 벽돌 집에서 멜빈 오와 알 제레미 애쉬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그 집은 교외에 있었으며 어린 시절 멜빈은 쏘트 레이크 계곡에서 울려 퍼지는 늑대의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찍부터 노동과 돈의 가치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린 소년으로 멜빈은 토끼와 비둘기를 기르고 가족이 운영하는 2 에이커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과일과 야채를 팔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는 슈거 하우스에 있는 아버지의 창고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반 나절은 창고에서 노동을 하고 반은 학교를 다니면서 유타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는 유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아직도 여러 가지 특별 활동에 관계하고 있고, 이년간 학교 신문 체육부 편집인으로 일한 바도 있습니다.

멜빈 오와 알 애쉬튼은 “항상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고, 항상 생각한 바대로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행하라.”라는 좌우명을 그

에게 가르쳤습니다. 애쉬튼가의 자녀들은 지혜의 말씀과 같은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이 가정에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가르쳤고 상호부조회 교사와 역원을 맡았으며 아버지는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일했고 관리 감독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요일은 성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고, 상향회에 나가고, 십일조를 바치는 것 등은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멜빈과 현재 십이사도 지역대표인 그의 형 웬델은 신권과 소년단과 청남 프로그램을 통하여 큰 발전을 하였으며 언제나 동료의 지도자로서 일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멜빈은 운동에도 뛰어났습니다. 선교사 시절에 그는 영국 국내 우승팀의 주장을 지낸 바 있고 유럽의 국제 시합에서도 우승을 한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농구팀은 선교 사업을 끝낸 저녁 시간에 연습을 했으며 일주일에 이틀 정도의 훈련 밖에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들은 유니폼을 살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휴일날 천을 구



해서 직접 재단하고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쉬튼 장로는 신체를 단련하기 위하여 정구, 경보, 기타 운동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총 관리 역원이 된 이후에도 스테이크 매 회를 참석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 전에 토요일 아침 7시에는 정구를 즐겼으며, 일 주일에 한번은 꼭 정오에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또한 일주일에 두 번, 아침 7시에 테저렛 체육관에서 패들 볼을 하곤 했습니다. 정구를 하는데 그가 가장 아끼는 상대자들 중의 한 사람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인 노마입니다.

애쉬튼 장로는 영국에 있을 때 뛰어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봉사하던 초기 시절에 주요한 선교 방법은 밀레니알 스타지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5개월 동안 애쉬튼 장로는 다른 선교사가 일년 동안에 판매한 것보다 많은 부수를 판매했습니다. 1937년 7월 7일 그의 선교부장인 조셉 제이 캐논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멜빈 장로는 지난 이주 동안 하루에 평균 세부의 밀레니알 스타지를 예약 신청하였는데, 선교부장으로서는 장로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 사업입니다. 스타지를 파는 데는 특별한 마력과 같은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근면과 성실과 개성과 신앙의 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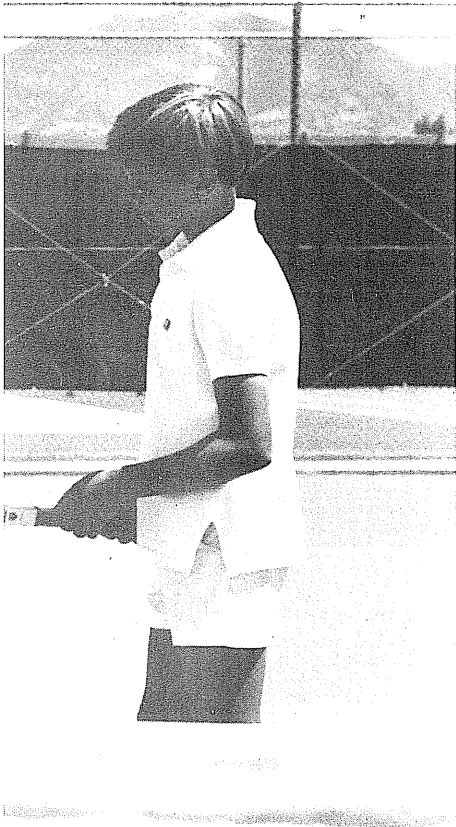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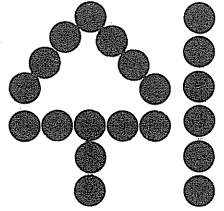
운동은 애쉬튼의 생활에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두 명의 젊은이에게 테니스의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

인 것입니다.”

신문인으로서의 경력과 능력 때문에 그는 후에 스타지의 부편집인이 되었으며 영국 선교부의 관리 장로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런던에 있던 유명한 감리교 목사와의 친분으로 그는 6개월 이상이나 매주 감리교 소년단 프로그램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애쉬튼 장로가 떠나기 일년 전에 그곳 선교부장으로 온 휴 비이 부라운 장로는 그를 “항상 본분을 다하고 꼭 필요한 장로”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교 사업을 하면서



의 구역에 살고 있는 놀웨이 출신의 근면한 가족이었습니다. 존 베르트슨은 건축 청부업자로 그의 집 뒷뜰에는 정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데이트를 하기 전에도 같은 와드에서 함께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운동도 하였으나 서로 처음 마음이 끌리게 된 것은 정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학 시절에 사랑을 하게 되었고 1940년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실로 뛰어난 교회의 두 젊은 지도자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대학 시절에는 고학을 하였으며 유타 대학의 여학생 회장이 되었고 졸업 시에는 우등생으로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녀는 교육학의 학위를 받았으며 멜빈이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교직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멜빈이 귀환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일년간 연애를 계속했습니다. 멜빈은 여러 차례 “노마는 나에게 있었던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결혼하기 일년 전부터 멜빈은 시간만 있으면 집을 짓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그가 새로 맞이할 신부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부채를 갚고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그는 그후 대여섯 채의 집을 더 지었는데 이를 하나씩 모두 팔았습니다. “저는 항상 집을 저당잡히는 일이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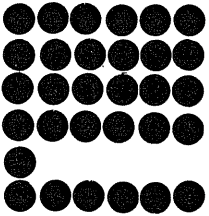
부채를 갚아 버렸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애쉬튼 부부는 네 자녀를 두었습니다. 변호사인 존은 영국 남서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하였으며, 사회 사업을 공부한 스티븐은 현재 뉴질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 왔으며, 유타 대학을 졸업한 딸 데일 위드는 현재 아이다호 보이스에 살고 있으며 막내 딸 제니스는 현재 부리감 영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그들은 손자 한 명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상적인 결혼을 하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충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랑과 활기가 가득 찬 가정이었으며 멜빈과 노마는 교회 일 때문에 항상 바빴으나 결코 상대방과 자녀를 아끼는데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1968년 이래 노마는 상호 부조회 본부 임원을 지냈으며, 멜빈이 청남 상향회 본부 임원으로 일하는 동안 그녀는 와드나 스테이크 청년 상향회 회장을 맡아 왔습니다. 그녀가 교회 역원의 직을 맡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은 멜빈 장로가 본부 임원 모임에 참석하는 날이 되어 왔고 이 때 가족들은 데저렛 체육관에서 수영을 즐기곤 하였습니다. 종종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밤길에 아버지와 만났습니다. “이러니 제가 우리 식구 중에 수영을 제일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멜빈 장로에게 만큼 깊은 관심을 가져 본 사람이 없으며 멜빈 장로가 보여 준 사랑과 협조 만큼 훌륭한 도움을 받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젊은 멜빈 애쉬튼은 소년들에게도 무척 인기가 있었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 정식으로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졸업 후 데이트의 상대는 노만 베르트슨이었습니다. 베르트슨 가족은 애쉬튼 가족과 같은 와드



라고 애쉬튼 장로는 농담을 하였 습니다.

애쉬튼의 집은 와드나 이웃 청 년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였습니 다. 애쉬튼 가족들은 젊은이건 늙 은이건 모든 사람에게 깊은 사랑 과 감사를 가지고 대하였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주인이라는 이름 이 붙을 정도였고, 그들의 집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건전한 오락 을 제공해 준다는 소문이 널리 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 이외에도 맬빈 장로는 공 익 사업을 위해 큰 공헌을 하였습 니다. 그는 전 생애 동안 소년단 에 깊은 관심을 가져 그와 아들 은 독수리 기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소년단에 공헌한 공로로 실 버 비버와 실버 앤테로프프 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국가 위원, 지역 집행 위원,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 카운슬의 집행 위원회 위 원으로도 봉사한 바 있습니다. 1960년 그는 유타 주가 베푸는 백 악관 청소년 대회의 임원으로 지 명되기도 했습니다. 애쉬튼 장로 는 1959년부터 1963년까지 상원 의원으로서 놀랄 만한 능력을 발 휘하였습니다.

인간의 가치란 이웃이나 동료 의 생활에 끼친 영향력으로도 평 가될 수 있습니다. 평소 애쉬튼 장로와 절친했던 한 친구는 다음 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친구인 우리들은 오래 동 안 그가 외모나 정신에 있어서 특 출하며, 강인하나 고집이 없고,



애쉬튼 장로는 21년간 청남 상향회 본부 임원과 본부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했다. 이 사진은 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조셉 필딩 스미스, 앤 엘튼 태너 부대관장, 회장인 지 카르 로스 스미스(중앙), 칼 에이취 웨너, 청녀 상향회 회장단 프로렌스 에스 제이콥슨, 마가렛트 알 잭슨, 도로 시 피 홀트 자매와 함께 찍은 사진 이다. ①

언제나 정치에 관심이 있던 그는 전당대회에서 후보자 지명을 받고 있 다. ②

일이나 책임에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를 지니고 있으며, 훌륭한 팀 의 구성원이요, 신사답고 항상 친 절하고 미소를 지으며, 함께 즐기고 싶고, 접근하기 쉽고, 귀담아 듣고, 젊은 이의 사랑을 받고, 운 동 경기를 참관하거나 직접 참여하 므로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1959년부터 1963년까지 앨빈 애쉬튼은 민주당 공화당 공히 갈채를 받는 상원 의원으로 일했다. 1961년에 찍은 이 사진은 상원 의원인 크라이 방법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스포츠맨십이 탁월한 인물로, 만사를 잘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를 보아 왔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이 바로 이 경륜의 시대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흔 아홉번째 사도인 앨빈 제이 애쉬튼 장로의 인품입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그의 생활을 특징지어 주는 다음과 같은 인디언의 속담이 걸려 있습니다.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눈이 멀게 될 것이다.” 1971년 4월 20일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라는 제목으로 부리감 영 대학에



드 밀러 씨와 찍은 것으로 그는 현재 국무성 유타 주 책임자로 있다 ㉞

1969년 10월 이래로 애쉬튼 장로는 교회의 사회 봉사 관리 책임자로 일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주제는 언젠가 가장 효과적인 설교, 가장 확신을 불어넣어 주는 메시지, 가장 달콤한 음성, 가장 마음을 울려 주는 대답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나타내 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때는 육성이나 정신의 음성이나 영의 음성이 침묵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저절로 말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 전역을 순방할 때에 많은 성도들은 그가 보여준 침묵의 설교와 그가 말하는 최고의 도덕적이며 정신적인 음성에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였

하고 있었다. 이 사진은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와 폴린 마틴이라는 인디언 소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㉟

는데, 이는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위해 온갖 정신을 다 쏟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이 적은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잘 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충고와 위안의 말은 “여러분이 현재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방황하는 가족에게는 “우리가 서로를 포기할 때 가정에서의 실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해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합당함을 몸소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타락해서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가 진리의 길과 암흑의 길을 옳게 판단할 수 없으며 부당한 압력 하에 놓이게 되는 때가 오리라”고 한 말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휴 니블리, 불문경 연구, 1957년)

우리는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힘이 분산되어 명백을 유지하지 못한 때를 기억할 수조차 없습니다. 악마는 언제나 훌륭한 조직력을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사주자들과 사탄의 위용으로 우리의 선량한 젊은 세대를 모두 멸망시키겠다는 의도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의 비겁한 흉계는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항상 슬픔과 가슴 아픈 것임을 보아 왔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는 파괴력은 우리의 문학이나 예술, 영화, 라디오, 복장, 무용, 텔레비전 스크린, 소위 현대 음악 등에도 큰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정과 가족과 특히 젊은 세대를 멸망에 이끌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악마의 공격의 대상은 우리의 젊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중 음악의 악 영향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어떤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나는 젊은이를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인 이분의 편지에서 다음의 몇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음악은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분위기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환경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과정의 도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리듬이란 음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것은 소리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고도 몸의 움직임을 야기시키는 음악적인 요소입니다. 마약이나 알코홀에 마비된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 소리에는 반응을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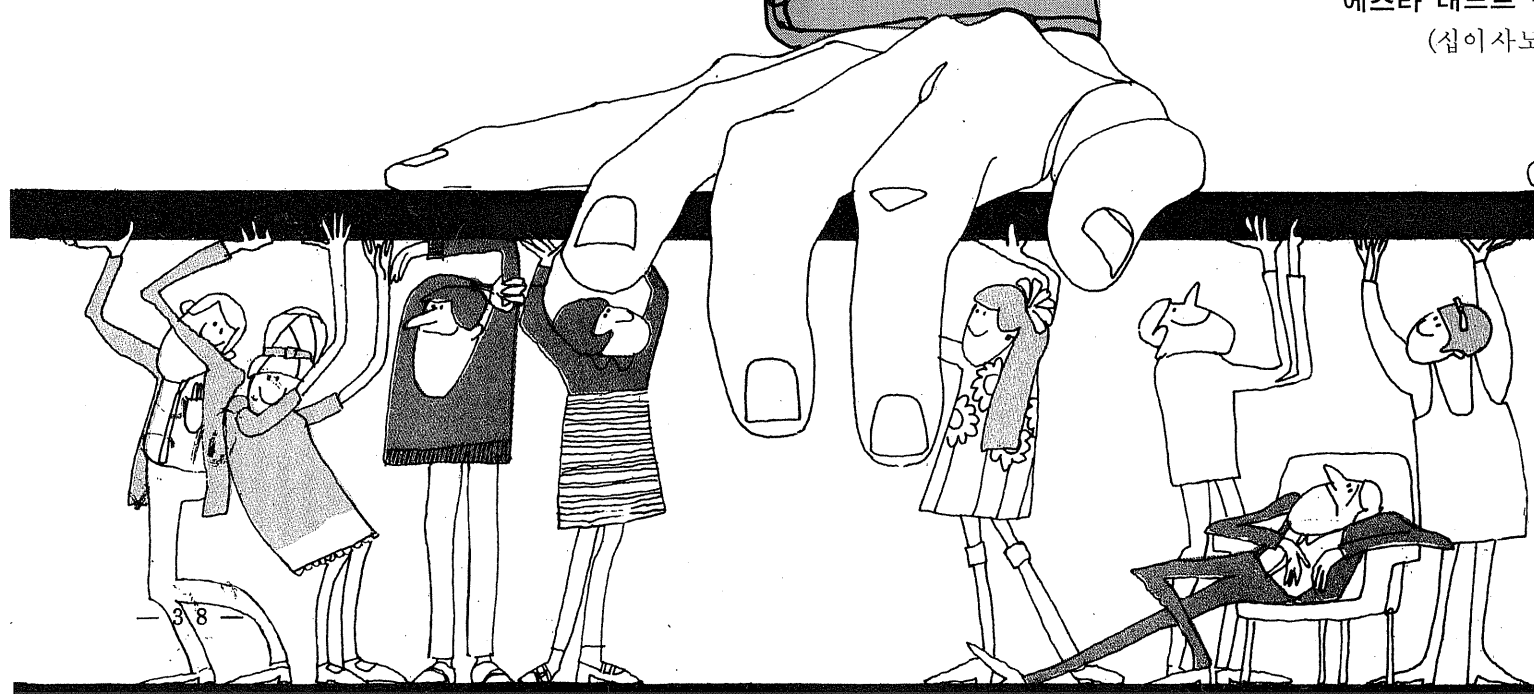
“소란한 소리는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큰 소리는 보다 높은 사고와 이성의 과정에 장애를 줍니다(이러한 파괴적인 음악의 소리를 낮춘다해도 부수적인 다른 악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극단적인 리듬을 반복하면 또 다른 원시적인 록 음악이 생깁니다.”

“특정 리듬에서 배움을 수 없는 어린이

사탄의 공격은

에즈라 태프트 (십이사도)



의 행 기

하는 동작도 역시 그러한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손이나 청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도 그것이 내포하는 뜻을 알게 됩니다…… “어두움 (어두운 불빛) 역시 록 음악에서 찾을 수 있는 일면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양심을 가리는 것도 이러한 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가려진 신분은 정상적인 책임감을 잃게 해 줍니다.

“섬광 전구는 심문자의 삼등 전구와 같이 저항을 잃게 하거나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는 최면사의 추의 움직임과 같은 역할을 해 줍니다……

“이러한 것의 심리적인 의도는 마약, 성, 반항, 신성 모독으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외설적인 가사와 뒤편벽이 되어 의치는 이러한 소리는 저속함만을 낳아 줍니다. 록 사회의 지도자들은 이미 그들의 퇴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행의 악마와 같은 기만성이란 자기가 완전하게 되기 위하여 악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자유주의적인 소수 물문의 상대론적인 철학으로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록 음악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젊은이를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보다 더 잘못된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사탄의 노래나 마약, 성, 반항, 배도 등으로 그들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문의 기적이라는 행사 때 들은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모로나이는 여러분이 악과 타협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악마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리처드 니블리,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

한 아버지이며 젊은이의 교사이며 대학의 음악과 교수인 이 사람의 편지는 분석적이긴 하지만 다른 많은 부모나 젊은이의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나타내 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일반의 요구에 못이겨 그 표준을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 미니 스커트를 입고 록 음악에 몸을 흔드는 사람은 물론, 담배, 코카콜라를 상용하는 사람들도 모두 악과 타협하지 않는 표준에 의해 거리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젊은이 보다 더 훌륭한 청년이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중요하고 도전이 많은 시기에 세상에 보내진 선택된 영인 것입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이들은 놀랄 만한 도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고 중대한 책임과 도전 목표는 가장 어려운 때에 옵니다. 악마의 힘이 지금처럼 널리 떨치고 유혹을 획책하던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도처에서는 훌륭하고 선하고 고상한 모든 것을 약화시키고, 값싸게 하며, 저속하게 하는 흥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것은 부모들이 안일한 생활을 좇다가 거짓된 안전함에 빠지게 되는 동안 젊은이들에게 공격의 목표를 돌리는 것입니다.

시온 안에서도 모두가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영감에 찬 물몬경의 예언자들은 이러한 날들을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신중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보라 그 날에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육욕의 안식처를 좇게 하며 이르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

“또한 보라 다른 자들을 달콤한 말로 피어 저들에게 지옥이 없다 하며 이르기를, 악마란 없는 것이매, 나는 악마가 아니로다 하며, 저들의 귀에 속삭여 말하기를 저들을 움켜잡아 무서운 사슬로 엮어낼 때까지 하며, 그때로부터 저들은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리니,

“그러므로 시온에서 할 일이 없이 편히 지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모든 것 잘 되리라고 외치는 자에

게 화 있을지이다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권세와 성신의 은사를 부인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니파이이서 28 : 20~22, 24~26)

주님께서는 현대의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엄숙한 훈계를 하셨습니다.

“진실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여러 국민의 기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 : 5)

“이는 시온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고 그 경계가 넓혀져야 하며 그 스테이크는 강하게 되어야 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은 마땅히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 : 14)

“그런코로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 네 허리 띠를 동여 매며 나의 온전한 갑옷을 입어 악한 날에 견딜 수 있게 하고 모든 일을 수행하여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라.”(교리와 성약 27 : 15)

우리는 교회의 젊은이를 사랑하며, 주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의로운 일로 젊은이를 돕고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래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맡은 바의 부문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해의 왕국에서 승영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범하고 정당하게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겁하고 건전하고 기쁨에 가득 찬 삶을 누리게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후회나 상심함이 없게 합시다. 그렇게 살아서 보이지 않는 힘에 손을 뻗치고 격려하여 줍시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범사에는 상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원칙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므로써 사탄의 유혹과 함정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실험실로 사용하므로써 우리는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네 일이나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가면 뒤에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비극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검은 그림자에 눈이 어두워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버리고 마약, 알코홀, 성, 록 음악 등에 빠지고 맙니다.

사탄의 방법을 연구해 보면 그의 꾀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는 교활한 간계로 언제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가장 약한 젊은이가 받기 쉽습니다. 젊은 시절은 모든 것이 새로운, 인생에 있어서

봄과 같은 때입니다. 젊은이는 모험심이 많습니다. 이 때는 신체적으로 훌륭한 건장을 지니고 활력이 있어서 절제하라는 요구를 비웃기 쉬울 때입니다. 젊은 시절은 연령의 한계가 무한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기 쉬울 때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는 현재가 곧 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노세 노세 젊어 노세”라는 사탄의 계획을 성취시켜 주는, 젊은이에게 있는 속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혼란의 상태란 사탄에게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어떤 개념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마약 복용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탄은 현실 도피라는 정확한 말을 사용하기 보다는 마음의 확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상한 전통의 말인 자유란 가장 혼란을 야기하기 쉬운 말입니다. 폭동, 폭격, 방화, 살인 등은 모두 자유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외설적인 것들이 마음껏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외설 문학, 마약, 부도덕이 미니 스커어트나 나체주의와 함께 개인의 자유라는 기치를 들고 나섭니다. 방종과 무정부 상태란 이러한 거짓 자유의 산물인 것입니다.

“외설적인 문학에도 이를 정의하는 데 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나 오늘날의 지나친 요구가 그것을 외설적이라고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용이란 말은 사탄이 잘 사용하는 좋은 말입니다. 알렉산더 포우프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악이란 놀라운 모습을 가진 괴물

입니다. 이를 우리는 두려워 하며 멀리해야 하나 자주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처음 볼 때는 인내로 참고, 다음에는 동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를 감싸고 받아 들이게 됩니다.” (“인간에게 부치는 글”에서)

“비웃음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젊은이의 탐구열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이를 냉소하는 사람은 혼란을 조성하는 비유법을 사용하여 그를 조소하므로써 그가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남을 조롱하면 쉽게 웃음을 자아내고 시온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는 재확신을 가져다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악마와 같은 부정행위입니다.

“상대주의 철학은 영원한 진리의 원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론자들은 ‘만일 인간이 팝송(유행 음악)에서 외설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그가 마음속에 옳지 못한 생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의 논리는 영향이라는 말 자체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나 가사에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일 록 음악에서 좋지 못한 영향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면 여러분은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음악에 도취된 사람의 빼뿔어진 성품을 보아서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가증스러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의 록 음악 애호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축제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화된 축제는 수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록 페스티벌이 있는 곳에 마약, 성, 반항의 페스티벌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리처드 니블리)

주님의 영은 인간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고 축복을 내려 줍니다. 그의 영은 환각제나 마리후아나, 스피드로 혼란이 된 타락한 인간의 축제에 임재하시겠습니까? 그

분이 저속하게 벗은 나체나 부도덕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록 페스티벌에서의 연설은 흔히 외설적이기 일쑤입니다. 원시적인 소리로 인간의 감각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들의 음악은 육체를 만족시키나 정신을 타락하게 합니다. 인간의 오랜 역사 중에서 이러한 록 페스티벌이야말로 사탄의 간계가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설적인 그리스나 로마의 비밀 축제도 이러한 마약, 부도덕, 반항, 외설, 음악 등에서 볼 수 있는 저속한 상황의 극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악명 높은 우드스톡에서의 축제는 병든 이 나라를 단적으로 나타내 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육욕을 자극하는 영화나 전례없이 외설적인 록 음악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큰 사업으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울어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교성 25:12)

물문경의 니파이삼서에서 볼 수 있는 “……적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저들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였고”(니삼 4:31)라는 말씀으로 보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니파이일서에는 리하이의 자녀들과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저들의 아내들이 농탕치기 시작하여 춤추고 노래하며……”(니일 18:9)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사탄이 보았다면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음악가들은 “어둠 속에서도 밝은 한 면을 찾아내고자 노력하는 많은 성직자나 레코드 회사가 주동이 되어 새로운 방향의 록 음악을 시도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종교적인 음악이 인기 톱텐 부문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록과 마약이 뒤섞인 문화에 대한 반항 의식이 새로운 도덕과 건전한 음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록 음악 자료를

잘 살펴 보면 위장된 반 그리스도 사상이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시 종교를 신화 속으로 이끌어가는 록 음악은 현실적인 죄악을 거부하면서 의로움의 옷으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없는 새로운 도덕은 종교라는 옷을 입고 흥청거리는 신성 모독의 행위를 계속할 것입니다. 예수와 유다의 역할을 바꾸어 놓으므로써 ‘악을 선하다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사 5:20)라는 경교가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습니까.”(리차드 니블리)

교회의 지도자가 1971년 8월 신권회 공보를 통하여 이러한 신성 모독과 배도 행위의 사악함에 대해 교회 회원의 주의를 촉구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인류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탄이 창궐하는 최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은 무자비하게 그의 힘을 동원하여 우리가 거두어 온 수확물을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계를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작년도 상호향상회의 주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를 잘 알려 주고 있습니다. 신앙 개조 13조는 그러한 점에서 중요한 열쇠를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만 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추구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는 조잡한 상업주의의 영향을 받아 의롭고 사랑스러운 많은 걸작품을 대할 기회가 적어졌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낸 작품은 사랑스러운이란 형용사로는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발명품을 만들어 낸 사람은 주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훌륭한 작품이 세상에 소개되자 암흑의 힘이 그를 이용하여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전축,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 각종 문명의 이기는 발명가의 본 의도와는 거리가 멀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몇년 동안 음악이 인간 행위에 미친 영향에 관해 관찰한 어느 음악가의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사탄은 음악이 원시적인 동물까지도 고무하고 위로하는 마력을 지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음악이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는 것은 헐리우드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분위기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환경은 인간의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라디오나 전축에서 울려 퍼지는 싸이키델릭 음악을 불평하는 부모는 불평을 하기 전에 자기의 레코드 수집 목록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목록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거나 다양성이 없다거나 사용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불평은 부모에게 달려있다 하겠습니까. 문화의 씨는 어린 모방의 시절이란 비옥한 땅에 뿌려질 때 가장 잘 자라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잃은 모범을 아무리 자란 후에 다시 고치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웅적인 형상을 남길 기회를 잃은 부모는 십대의 영웅이라는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리차드 니블리)

오늘날 이러한 영웅으로 추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과거처럼 고상하거나, 겸손하거나 의롭거나 어떤 일을 성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문이나 잡지나 책에서, 특히 젊은이를 다루는 편에서는, 그러한 영웅이란 음탕하고 외설적이고 부도덕하고 탐욕적이며 심지어 잔인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유명한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과시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한 삶의 예를 젊은이가 숭양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젊어져야 합니다. 자녀의 보살핌과 뒷받침에 있어서는 그들의 육체적이며 정신적이며 지적인 삶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삶에 대한 똑같은 관심을 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젊은이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 가는 젊은이에게 오늘날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은 부모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가정의 밤은 사탄에게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상향회 프로그램은 우리의 젊은이를 온갖 악에서 보호해야 하며 세속적인 유혹을 물리친 후 얻는 공백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문제나 개인적인 의심을 해결해 주는 만능약이란 아침 저녁으로 혼자 혹은 가족과 갖는 기도입니다.

비난을 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사람보다 효과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사랑과 이해는 순수할 때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순수해지기 위해서 그들은 사랑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의로운 생활을 하던, 잘못을 범하고 있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배우고 분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공평한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점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전반적으로 타락해서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가 진리의 길과 암흑의 길을 옳게 판단할 수 없으며 부당한 압력 하에 놓이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부모나 젊은이의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공평한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권능과 좋은 상식을 갖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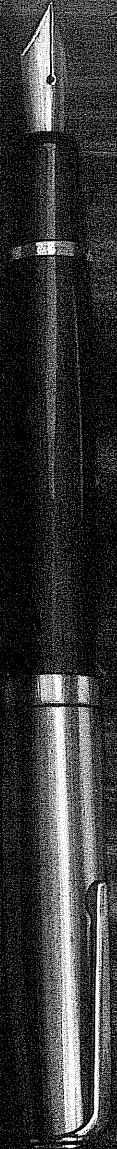


우리는 친진난만하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믿는 어린 시절에서 우리와 손을 마주 잡고 함께 걷는 소년과 같이 성장해 가면서 인생이 굽이지며 흘러감을 느끼곤 합니다. 때때로 초조함, 때로는 무관심 속에서 시간의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줍니다. 때때로 고집과 자기 확신 속에서, 때로는 부모를 멀리

떠나서 계절의 바뀜을 느껴 봅니다. 기대 속에서 겸손함을 지니고 성숙해 가며 우리를 용서해 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다시 전할 때 우리는 또 다시 인생을 회고해 보게 됩니다. 몇년 전에 프랭크 크레인은 부드럽고 심금을 울리는 말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세상을 떠나신지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아버님께 이 글꼴을 올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몰랐던 것을 이제야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싶어 되었습니다. 오랜 학창시절이 지나고 제머리가 반백이 된 이제야 저는 아버님이 느끼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나 봅니다. 아버님의 속을 샅샅이 훑어내려본 제가 아십니까! 여러씩은 생각이 고집했던 제가 아십니까! 아버님께 령한 큰 격을 고백합니다. 아버님은 저를 이해하지 못 하신다고 말하던 제가 아십니까! 사실 아버님은 제가 자신을 느끼고 있는 것보다도 더 잘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 뜻을 많이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저에게 관심은 보이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무엇 때문에 아버님을 멀리 하였던지 모르겠습니다. 부자 간에 벽이 막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었습니까? 이제 저는 아버님께서 단 한 시간 만이라도 옆에 저와 함께 하여서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이 가로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이해하려 사랑하여 다시 아버님의 부드러운 품에 안긴 소년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갈 날도 멀지는 않다고 생각되며 그곳에서 제일 먼저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시라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상에서 가장 값지고 고귀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해 느끼는 강한 사랑과 부드러움과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자식을 가지므로 알게 된 진실한 마음입니다. 침묵 속에서 불이 계시는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시고 저를 믿어 주시옵소서.



1. 프랭크 크레인, 4분간의 수상 : 아버지 "진리의 말씀" 1971년 6월 20일 템플 스케이로부터 미국 씨·비·에스와 케이·에스·엘 방송망을 통해 전파됨. 1971년 리처드 엘 이반스 씀, 케이스 몬태그 그림.



못 다한 말

단편소설

아이리스 신더가드

레이나 캐혼은 경쾌한 걸음 걸이로 층계를 밟고 올라가 거실로 들어갔다. “아빠 계세요” 하면서 그녀는 소리쳤다.

“부엌에 있단다?”

그녀는 부엌 쪽으로 급히 달려 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남비에다 무엇을 넣고 휘저으면서 난로가에서 있었다. “난 네가 너무 바빠서 저녁을 차리러 오지 못할 줄 알았단다. 그래서 수프가 든 통을 땀지”라고 말했다.

레이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기와 아버지만이 집에 있는게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해 왔다. 찰스는 군대에 가서 없고, 어머니는 첫 아기를 난 앤에게 가시고 안 계시다. 레이나는 아버지가 제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깨끗한 옷을 입으시게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너무 자신이 게을러졌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아빠 늦어서 미안해요. 데비와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늦었어요. 수프에다 토스트를 드시겠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아무렴 어때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어머나, 이걸 어쩔담! 무용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지금 뛰어 가면 버스는 잡을 수 있을텐데”라고 그녀는 말했다.

몹시 서둘러 뛰어 나오면서 레이나는 아버지가 이날 따라 특히 더 언짢게 여기셨을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입가의 주름이 다른 때보다 더 깊어 보였고 안색도 회색으로 보였다.

레이나는 잠시 동안 문 앞에 서서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돌아 가서 아빠에게 후식을 갖다 드려야 하겠지만 무도회장의 장식도 끝나지도 않았고 음악도 결정되지 않아 학교 강당에서 웅성거릴 사람들을 생각해서 문을 닫고 정거장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캄캄한 밤이었다. 모



1972년 6월호

든 창문이 겹게만 보였다.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히 여기면서 그녀는 부엌의 불을 켰다. 음식은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찬 바람이 그녀의 귓전을 스쳐갔다.

“아빠?” 그녀는 거실에 있는 램프에 불을 켰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계셨다. 주먹을 왼쪽 양팔을 끼시고 눈을 감고 계셨다. 레이나는 바깥 나가 서서 몸을 구부리고 본 후 아버지가 숨이 막혀 신음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아빠! 어쩐 일이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라고 그녀는 당황해서 물었다.

그는 눈을 겨우 뜨고 “심장이” 라고 거칠게 말씀하시고는 “의사...”를 찾으시는 것이었다.

레이나는 급히 전화를 걸어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너무 당황해서 다이얼을 돌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수분내에 구급차가 도착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만납시다”라는 샤논 박사의 말을 듣고서야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비록 십오 분이 지나기도 전에 그녀와 아버지는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레이나는 그 짧은 순간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는지 절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의식불명인 아버지를 쳐다 보며 “만일 아빠가 돌아 가신다면 어떻게 하나” 하며 되풀이 해서 생각을 했다. 일상 생활의 모든 면을 돌보아 주시던 인자하시고 조용하신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아버지가 안 계신 세상은 텅빈 세상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용기도 없는 좌절 속에 빠진 생활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들 것에 실려 병실로 옮겨졌다. 아버지 모습이 안 보이게 되자 그녀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한 간호원이 다가와서는 입원 수속을 밟으라는 말을 해 주었다.

사무실에 있던 한 여성이 “아버님은 생명 보험 증서를 가지고 다니시나요?”라고 물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시던 카드를 기억했다.

“정리를 한 후 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지갑이 그녀의 손에 다시 넘겨진지 몇 분이 안되어서 그녀는 아버지가 중환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고 이미 닳아서 윤이 난 지갑을 받아 들고 서류에 필요한 내용을 일러 준 다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아침까지는 이곳에 도착하겠다는 말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마치 아버지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므로써 어떤 위로라도 받으려는듯이 아버지의 지갑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 지갑 안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을까를 생각하던 레이나는 어느 해 여름 등산을 갔을 때 자기와 찰스와 앤이 함께 찍은 사진을 아버지가 항상 가지고 다니셨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 사진이 아직도 지갑 안에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녀는 지갑을 열어 보았다. 그녀가 지갑을 여는데

꼭꼭 접힌 종이가 지갑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그 종이를 펴 보았다. 그녀가 그 종이를 읽어 내려가다가 지난 주 자기가 신문에서 읽고 느낀 바가 있는 내용을 아버지께서도 보시고 오려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었다. “나는 이제 55년 간을 살아 왔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 애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동시에 그들의 애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아들이나 딸들이 나의 손을 잡고 난 아빠가 좋아요 라는 말을 한다면 정말 무엇이고 다 주고 싶을 것입니다.”

레이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종이를 접었다. 아빠 제발 돌아가시지 마세요 라고 그녀는 마음 속으로 빌었다. 정말 몇해 동안 못다한 것을 다 해드리고 싶어요.

천천히 시간이 흘렀다. 레이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날 어린 시절에 학교에 데려다 주시던 아버지가 자기와 걸음의 속도를 맞추려고 억지로 천천히 걸으시던 모습을 생각했다. 그녀는 또한 지난 날 자기 생일을 생각했다. 아버지는 너무나 큰 장난감 호랑이를 사셨기 때문에 포장을 하지도 못하고 집에 가져 오셨던 것이다.

그녀는 맹장 수술을 받을 때 침대 옆에 늘 앉아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 때 아버지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곧 낫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는 또한 테이트를 하러 나가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나는 이제 너를 신임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았다.

막 그 때 샤논 박사가 방으로 들어 왔다. 레이나는 벌떡 일어나서 그에게로 달려 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게 다 잘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지금 쉬고 계십니다”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초조한듯이 숨을 내쉬고 레이나는 “아빠를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나 오래 계시면 좋지 않습니다”

천천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레이나는 높고 좁은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방으로 갔다. 항상 바쁘시고 관심을 보여 주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누워 계신 것을 보니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였으나 이마에 있는 주름살이 퍼진 것 같았고 그의 눈은 침착성을 잃지 않았다.

침대 옆에 있는 의자를 끌어 당기고 레이나는 앉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고 아버지의 강하고 굳은 손을 꼭 잡았다.

“아빠” 그녀는 부드럽게 불렀다. “정말로 아빠를 사랑해요”

천국시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을 구하지 못하면……”
 오늘날의 현대인은 복잡하고 무질서하며 경쟁의 사회에서 생활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정지할 기회를 갖는 예가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오래전에 평화를, 행복하게 살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주셨으나 불완전하고 교만에 찬 인간들은 이를 추구하는 대신 불안과 불행과 괴로움을 갖어다 줄 지식과 방법을 추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은 우리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배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드린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지식과 이에 따른 생활태도는 어떠한 것일지 생각해 봅직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한 국가의 시민이 되려면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하며 그 법을 위반하면 이에 따른 법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조상들에게 천국시민으로써 지켜야 할 10개의 법을 주셨으니 십계명이라 부릅니다. (출애굽기20) 이것들은 오직 우리들로 하여금 의로운 가운데 생활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하도록 하신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다함은 실로 중요한 법 입니다. 안식일에 주님의 집에서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드리며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간구함이 옳은 태도입니다.

간음은 옛부터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와같은 불의를 예방해야 합니다.

십일조는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행복의 일부를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함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늙을때 함께 슬퍼함은 당연지사여서 그리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쁠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것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위대한 희생과 표현키 그 무한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매일 매일의 생활에 임한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써 부끄러움 없는 나날을 살아 감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 훌륭한 천국시민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구합니다.

선교부장단 제1보좌
 이 호 남

